



완벽한 이해와 고득점 전략을 위한

정답과 해설

1

세상을 보는 눈,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

1 시의 화자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8~9쪽

- | 핵심 확인 문제 | 1 화자, 시인 2 (1) × (2) ○ (3) ○
 3 ③ 4 ④ 5 귀뚜라미, 노래

- 1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시의 화자라고 한다.
- 2 (1) 시의 화자는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3 시인은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화자를 설정한다. 그러나 화자를 설정한다고 해서 시에 서사적인 구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4 화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 5 ‘귀뚜라미’는 현재는 매미 소리에 둔한 울음을 울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가을이 되면 자신의 울음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0~11쪽

-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 1 ④ 2 ⑤ 3 ② 4 화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어 밝고 씩씩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1 ‘학교’, ‘교실’, ‘용돈’, ‘나는 아직 어리지만’ 등의 시어를 통해 이 시의 화자가 청소년기의 학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4연을 통해 화자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돋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1 ‘은빛 물고기’는 화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

기 위해 비유한 대상일 뿐, 시의 화자는 아니다. 또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 2 2연에 환경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 ‘나’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3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며,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남을 돋는 것은 아니다.
- 4 ‘나’는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이 시는 1연에서는 화자가 할 수 없는 일을, 2연에서는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고 있다. 2연에서 화자는 할머니에게 지하철 좌석을 양보하거나 지진으로 집을 잃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⑤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돋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한다.

- 3 이 시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1연과 2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는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 3 1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2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하는 대조법이 사용되었다.
- 4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통해 ‘나’가 지향하는 삶을 ‘은빛 물고기’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5 ‘～ㄹ 수 없고’, ‘～ㄹ 수 있고’, ‘～ㄹ 수 있어’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 4 [서술형] 이 시는 청소년기의 학생을 화자로 설정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용기 내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씩씩한 말투로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 전체적으로 밝고 씩씩하며 당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과서 활동 정답하기

본문 12~15쪽

-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③ 2 은빛 물고기
 3 ④ 4 ④ 5 ③ 6 ① 7 ⑤ 8 ⑤ 9 ②
 10 ② 11 ⑤ 12 ③

- 1 이 시의 화자는 2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한 후, 3연과 4연에서 아직 어리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용감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신의 실천과 다짐에 대해 말할 뿐, 타인에게 이를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화자는 아직 어려서 큰 힘이나 엄청난 능력은 없다고 했지만, 이로 인해 괴롭고 힘든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화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대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없는 일에서 오는 무력함과 그로 인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 '은빛 물고기'는 작지만 온몸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도를 용감하게 헤쳐 나간다. 화자는 '은빛 물고기'에 자신을 비유하여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이 시의 화자는 씩씩하고 당차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뜻하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2연에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3연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화자의 이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2~4연에서 '~ㄹ 수 있어'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다짐을 씩씩하고 당차게 표현하고 있다.
- ⑤ 2연에서 화자가 지하철 좌석을 할머니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다.

4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했을 뿐,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즐긴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교실', '학생', '용돈', '학교 도서관' 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청소년기의 학생임을 알 수 있다.
- ② 3연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 ③ 2연에 나열한 화자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해당한다.
- ⑤ 2~4연에서 '~ㄹ 수 있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5 이 시의 화자는 청소년이지만, <보기>에서는 화자가 성인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나'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것에서 '너'가 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시의 분위기도 씩씩하고 당찬 분위기에서 교훈적인 분위기로 달라졌다.

오답 해설

- ①, ② 화자가 달라지면서 시의 내용과 주제가 '자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실천의 다짐'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 ④, ⑤ 이 시의 화자는 청소년기의 학생이며, <보기>의 화자는 성인이다.

6 이 시는 청소년기의 학생을 화자로 설정하여 어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독자들도 시의 화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화자는 청소년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정적이기보다는 씩씩하고 당찬 분위기가 형성된다.
- ⑤ 순수하고 용감한 화자의 모습은 또래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화자의 어리숙한 모습과 그에 대한 연민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로, 현재는 매미 소리에 묻혀 괴롭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귀뚜라미'를 의인화하여 화자로 설정하였다.
- ② 화자는 현재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 ③ 화자는 자신의 노래로 남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고 싶은 것이지, 남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④ 화자는 여름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며, 매미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8 '여름'은 매미의 계절로, 매미는 '높은 가지'에 있다. '가을'은 귀뚜라미의 계절로, 귀뚜라미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이 땅 밑'에서 '귀뚜르르 뚜르르' 울음을 울며 타전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으며, 가을이 되어 자신의 울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9 '차가운 바닥'은 촉각적 심상, '토하는 울음'은 청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귀뚜라미의 괴로운 현실을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10 귀뚜라미에게 '여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로 '울음'을 우는 시절이며, '가을'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노래'를 부르는 때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차가운 바닥에 토하는 울음'은 귀뚜라미가 여름을 지내며 내는 소리에 해당한다.
- ④, ⑤ '마음을 울리는 노래'와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는 가을에 귀뚜라미의 소망이 이루어진 소리에 해당한다.

11 여름을 견디며 가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귀뚜라미를 통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귀뚜라미 소리는 작고 약한 소리로, '차가운 바닥', '토하는 울음', '숨 막힐 듯' 등과 같이 귀뚜라미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달한다.
- ② 매미의 계절인 여름과 귀뚜라미의 계절인 가을이 대비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 ③ '귀뚜라미'는 현재는 괴롭고 힘들지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때를 기다리며 고통을 견디고 있다. 이를 통해 척박한 환경에서 오는 삶의 고단함을 한탄하려 한 것은 아니다.
- ④ 가을에 주로 활동하는 귀뚜라미를 통해 자신의 시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귀뚜라미의 생태적 습성을 알려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12 이 시는 사람이 아닌 곤충(귀뚜라미)을 의인화하여 화자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동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2, 3연의 마지막에 '～ㄹ 수 있을까'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귀뚜라미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귀뚜르르 뚜르르'라는 의성어를 사용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높은 가지에서 노래하는 매미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아 땅 밑에서 울음을 울고 있는 귀뚜라미의 상황을 대조하고 있다.
- ⑤ 설의법을 통해 '울리고 싶다'를 '울릴 수 있을까'와 같이 표현하여 귀뚜라미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였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16~19쪽

- 1 ③ 2 ⑤ 3 ⑤ 4 ④ 5 작지만 용감하고 씩씩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6 ④ 7 ② 8 ② 9 ⑤ 10 ④ 11 ④ 12 가을이 되면 자신의 노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 ⑤ 14 ⑤ 15 ② 16 가을이 자신의 계절로, 현재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지내며, 자신의 노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17 ② 18 ④

- 1 이 글은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시이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필의 특성에 해당한다.
- 2 '학교', '교실' 등을 통해 이 시의 화자가 청소년임을 추할 수 있다(ㄷ). 또한 3~4연의 내용을 통해 이 시의 화자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ㄹ).

오답 해설

- ㄱ. 이 시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은빛 물고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은빛 물고기의 삶'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

3 1연은 화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2연은 화자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열되어 있다.

4 [A]에서 화자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ㄹ 수 있어'와 같이 당차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③ 아직 어리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 ⑤ 과거에 대한 반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5 [서술형] ⑦과 ⑧은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통해 직유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를 파도를 헤쳐 나가는 '은빛 물고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아직 어리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씩씩하게 실천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개념 틀리스

비유

(1) 뜻: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방법

(2) 종류

- 직유법: 두 대상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직접 비유하는 방법 ❶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은유법: 표현하려는 대상을 이어 주는 말 없이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❷ 내 마음은 호수요.
-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❸ 풀은 눕고 울었다.

(3) 효과

-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 참신한 느낌을 주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6 이 시에는 화자가 '나'로 직접 나타나 있지만, <보기>에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⑥ 이 시의 화자는 청소년으로 씩씩하고 당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비해 <보기>의 화자는 성인으로 권유하고 가르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밝고 씩씩한 분위기가, <보기>에서는 차분하게 타이르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③ 이 시는 자신의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보기>는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침을 전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7 화자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자기 가족의 이익과 안전만을 우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8 귀뚜라미는 현재 매미 소리에 묻혀 척박한 환경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다.
- ③ 여름은 귀뚜라미에게 고통스러운 시기로 '울음'으로 표현되며, 가을은 귀뚜라미의 소망이 실현되는 시기로 '노래'로 표현된다.
- ④ 귀뚜라미는 현재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 '귀뚜르르 뚜르르' 타전 소리를 내고 있다.
- ⑤ 귀뚜라미는 여름은 매미의 계절이기에, 자신의 계절인 가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9 ①~④는 귀뚜라미가 현재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여름을 견디며 내는 소리이고, ⑤는 가을이 되어 귀뚜라미의 소망이 이루어진 소리이다.

10 이 시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화자로 설정하여 화자의 정체와 처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ㄱ).

'~ㄹ 수 있을까'의 문장 구조를 반복해 가을을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ㄴ).
'귀뚜르르 뚜르르'와 같은 의성어, '타전 소리'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귀뚜라미의 소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였다(ㅁ).

오답 해설

- ㄷ. 귀뚜라미의 처지를 매미와 대조하여 귀뚜라미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을 뿐, 귀뚜라미의 강인함을 드러내려 한 것은 아니다.
- ㄹ. '~ㄹ 수 있을까'와 같은 의문형으로 시구를 마무리해 화자의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이 시는 가을을 기다리는 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하여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서술형] 화자가 여름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은 가을이다. 가을은 화자의 울음소리가 노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13 (가)의 화자는 청소년, (나)의 화자는 귀뚜라미로, 시인은 자신과 다른 존재를 화자로 설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 모두 시의 화자가 '나'로 시에 직접 드러난다.
- ② (가)에만 해당한다.

③ (나)에만 해당한다.

④ (가)와 (나)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않다. 특히 (나)의 화자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잊지 않고 있다.

14 (가)에서는 '~ㄹ 수 없고', '~ㄹ 수 있고', '~ㄹ 수 있어'를 반복하고 있고, (나)에서는 2~3연에서 '~ㄹ 수 있을까'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귀뚜르르 뚜르르'에서 소리를 흉내 낸 말이 나타난다.
- ② (나)에 설의법이 사용되었을 뿐, (가)와 (나)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가)의 1~2연에 해당한다.
- ④ 점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와 (나)에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15 (가)의 화자가 다른 사람을 돋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3연에 남을 돋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⑤ 2연에 자신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다.
- ④ '학교', '교실' 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16 [서술형] 이 시에서는 귀뚜라미와 매미의 대조를 통해 귀뚜라미의 현재 상황과 소망에 대한 간절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가)의 화자는 힘든 사람들을 돋고 응원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힘든 처지에 놓인 (나)의 화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나)의 화자의 꿈을 지지하는 응원의 말을 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귀뚜라미가 자신의 울음이 아직 노래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귀뚜라미는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리를 내고 있다.
- ④ 귀뚜라미의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고 싶은 것 이므로, 듣는 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⑤ 귀뚜라미는 매미가 여름을 맞아 소리를 내고 있다고 서술할 뿐, 매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18 ①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살아 있음을 알리는 작은 소리이다. 우렁찬 소리는 매미 소리에 해당한다.

2 소설의 서술자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20~21쪽

- | 핵심 확인 문제 | 1 (1) ○ (2) ⑦ 2 ③ 3 직접적 제시
4 1인칭 주인공 시점 5 ⑤ 6 감자

-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나’로 소설 안에 존재하고,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소설 밖에 존재하며, 소설 속 등장인물을 3인칭으로 지칭한다.
- 2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소설 밖의 서술자가 소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 3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다.
- 4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로 소설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
- 5 점순이는 조숙하여 이성의 감정에 눈을 뜨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나’는 어수룩하여 점순이의 호감을 알아채지 못한다.
- 6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감자를 건넸지만, ‘나’의 거절로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22~23쪽

-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1 | 1 ② 2 ① 3 ② 4 ④
5 ‘나’의 수탉이 닭싸움에서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기만 하여 속상하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 1 이 글은 소설로,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이다.
오답 해설
①은 수필, ③은 시, ④는 논설문, ⑤는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 2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소설 속에 존재하며, 소설의 주인공으로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는 3인칭 전지적 시점, ③은 1인칭 관찰자 시점, ④와 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3 (가)의 ‘오늘도’, (나)의 ‘이번에도’의 표현을 통해 지금 벌어지는 닭싸움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불여 놨을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나)의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를 통해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 가’를 통해, 닭싸움을 보면서 ‘나’가 분하고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다.
⑥ (가)의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 킥, 할 뿐이다.’를 통해 ‘나’의 수탉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가)~(나) 부분은 소설의 발단 단계로,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소개되며, 인물 간 갈등이 생겨나는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 5 [서술형] ⑦에는 ‘나’가 자신의 수탉의 처지에 감정 이입을 하여 자기가 피를 흘리는 것같이 느끼고 몹시 화가 난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24~25쪽

-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2 | 1 ② 2 ⑤ 3 ① 4 ③
5 ‘나’가 감자를 거절하자 자신의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무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난다.

- 1 ‘나’는 점순이가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한 말을 자신의 집안 형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감자를 거절했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말을 걸고 있다.
③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란만’을 통해 ‘나’는 평소 점순이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점순이는 감자를 거절당한 것이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분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⑤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주는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 2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것인데, 순박하고 어리숙한 ‘나’는 이러한 점순이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해하여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가 감자를 준 이유, 점순이가 화가 난 이유를 눈치채지 못하는 ‘나’는 둔하고 눈치가 없는 편이다.
② ‘나’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티?’나 ‘니나 먹어라.’와 같이 ‘나’는 무뚝뚝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④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점순이다.

- 3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속마음은 자세히 전달할 수 있지만,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명확히 알 수 없다.
- 4 ④에는 '참으로 놀랐다'라는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머지는 인물의 행동과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독자가 유추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행동을 통해 무뚝뚝한 성격을 드러낸다.
 ②, ③ 화가 난 점순이의 심리 상태를 행동이나 외양 묘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 5 [서술형] (라)에는 점순이가 '나'에 대한 호감의 표현으로 건넨 감자를 거절당하자, 무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난 심리가 잘 드러난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26~27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3 | 1 ③ 2 ③ 3 ②, ③

- 4 ② 5 '나'가 마름의 딸인 점순이를 함부로 대하면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수 있기 때문이다.

- 1 '나'는 자신의 관점에서 점순이의 평소 성격, '나'와 점순네 집안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마)에서 점순이는 평소 넉살이 좋고 부끄럼을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나'와 점순네의 형편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나'가 점순이를 부러워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점순이가 '나'의 씨암탉을 데려다 때리는 게 분하기는 하지만,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만 후려칠 뿐 다른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⑤ (바)에서 '나'는 이 마을에 이사 왔다고 하였다.

- 2 '나'의 집은 마을에 이사 온 후 점순네에게 땅과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처지이다. 또한 양식이 부족할 때면 점순네에서 빌리기도 한다. 즉, '나'의 집은 점순네에게 경제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 ① 점순네가 마름, '나'의 집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다.
 ② 점순네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나'의 집은 기난하고 지위가 낮다.
 ④ '나'의 어머니는 '나'와 점순이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경계한다.

- ⑤ '나'의 어머니는 점순네를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고 하였고, 점순네가 탐욕스럽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3 '마름'은 지주에게 권한을 부여 받은 땅의 중간 관리자이고, '배재'는 소작농이 땅을 빌릴 때 주고받는 문서이다. 이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 4 점순이는 일부러 '나'가 잘 볼 수 있는 자신의 집 봉당에 걸터앉아 '나'의 씨암탉을 보란 듯이 때리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의 씨암탉을 괴롭힌다.
 ③ 점순이는 '나'의 집이 자기 집에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④ 점순이의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은 감자를 거절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부터이므로, 이에 대한 양감읍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닭의 고통이나 '나'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점순이의 독하고 영악한 면을 보여 준다.

- 5 [서술형] '나'는 점순이의 괴롭힘에 화가 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점순네와 '나'의 집의 마름과 소작농이라는 관계로 인해 점순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28~29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4 | 1 ③ 2 ② 3 ⑤ 4 ②

- 5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감자를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풀이를 하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 1 이 소설은 구어체, 비속어, 토속어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작가 김유정 소설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판소리 사설과 같이 길게 이어지는 만연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개념 퀄러스

판소리 사설체

- (1) 뜻: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지니는 문체로, 판소리 사설처럼 노래를 붙이지 않고 독자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독자를 향해 직접 말하는 식으로 쓰인다.

(2) 특징

- 문장 종결 시 존대 표현(−습니다, −요, −라 등)을 사용함.
- 대사나 서술에 현장감 있는 사투리나 구어체가 첨가됨.
- 언어유희적인 표현이나 편집자적 논평, 해학과 풍자, 장면의 극대화(비슷한 사례들의 많은 나열) 등이 나타남.

- (3) 대표 작품: 채만식, 「태평천하」, 천명관, 「고래」

- 2 점순이의 괴롭힘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는 큰소리라도 쳐 보았지만, 점순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암탉을 괴롭혔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의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은 감자를 거절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부터다.
③ (아)에서 알 수 있듯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섶이 물려앉으며 빼대만 남기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④ (아)에서 점순이는 ‘나’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네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씨암탉을 때리고 있다고 하였다.
⑤ (차)에서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모이로 피어내다가 삼을 붙인다고 하였다.

- 3 ‘이타적’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을 뜻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의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는 특성이다.

- 4 ‘점입가경(漸入佳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꽂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나’를 괴롭히는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점순이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③ 청출어람(青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난형난제(難兄難弟):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⑤ 죽마고우(竹馬故友):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이란 뜻이다.

- 5 [서술형]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의 표현으로 건네 준 감자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양깊음을 하면서,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으로 ‘나’의 닭을 괴롭히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나’는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뻔친다는 속설을 그대로 믿고, 닭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자신의 닭이 어쩌다 공격에 성공하자 볼기짝을 두들기며 좋아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해, 점순이의 마음을 달랠 생각을 하기보다 엉뚱하게 닭싸움에서 이길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

- 2 점순이가 닭싸움을 계속 시키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지만, 이는 점순이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므로, ‘나’에 대한 호감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3 ②에서 볼기짝을 두드린 것은 이제까지 당하기만 하던 ‘나’의 닭이 점순네 닭을 공격한 것에 신이 나서 한 행동으로 점순네 닭이 당한 것에 대해 속시원하고 재미 있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④ ‘멈찔하다’는 ‘멈칫하다’의 방언에 해당하여, ‘하던 일이나 동작을 갑자기 멈추다’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 ① 배채: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꾀.
② 열리다: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짐승이 한데 섞여 어우러지다.
④ 쟁그렵다: ‘하는 행동이 괴상하여 알집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고소하다’의 뜻이다.
⑤ 서슬: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

- 5 [서술형] ‘나’는 우연히 자신의 닭이 공격에 성공해 크게 신이 났지만, ‘나’의 닭이 역습을 당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본 점순이는 ‘나’를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더 크게 웃고 있다. 이에 ‘나’는 분하고 약이 오르면서, 불쌍한 닭이 마치 자기 신세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32~33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6 | 1 ② 2 ① 3 ③ 4 그랬
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 1 (거)~(더)는 소설의 절정 부분에 해당하며, 이제까지 ‘나’와 점순이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다.

- 2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④-③-①-②-⑤이므로,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은 ①이다.

- 3 ④ ‘나’는 ‘나’의 닭이 점순네 닭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30~31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5 | 1 ④ 2 ④ 3 ④ 4 ③

5 분하고 약이 오르고, 점순네 닭에게 쪼이는 불쌍한 닭이 마치 자기 신세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 1 ‘나’가 점순네 닭에게 싸움을 겨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점순이가 계속 닭싸움을 붙여 당하기만 한 것이 속상해 한 행동이다. 이것만으로 ‘나’가 능동적이고 호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은 고추장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으며, 고추장을 더 먹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⑥ 닭이 빼드러진 것을 보고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⑦ 점순이가 해에 가둔 닭을 또 꺼내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⑧ 호드기를 불면서 닭싸움을 붙여 놓은 점순이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

- 4 해당 부분 전까지는 나흘 전부터 점순이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서술하였고, 이 부분부터는 발단 부분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시점으로 되돌아온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34~35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7 | 1 ⑤ 2 ③ 3 ② 4 ⑤

5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곧 후회가 되고, 가족들에게 닉칠 일이 걱정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 1 ‘누 집 닭인데?’라는 점순이의 반문에는 네가 죽인 닭이 마름네 집 닭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점순이가 마름집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점순네 수탉을 단매로 때려죽인 것을 인정하고 걱정하고 있다.
② 닭이 죽은 걸 비밀로 해 준다는 말은 두 사람이 화해한 후 점순이가 먼저 하였다.
③ 동백꽃 속으로 ‘나’와 점순이가 넘어진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후에 점순이가 밀었기 때문이다.
④ ‘나’는 점순이가 닭이 죽은 걸 비밀로 해 준다는 말을 하기 전에 얼김에 울음을 터트렸다.

- 2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 속으로 넘어진 것은 ‘나’가 아니라 점순이 때문이다. ‘나’는 뒷에 떠다밀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 사람이 노란 동백꽃 속으로 넘어진 것은 점순이가 ‘나’를 안고자 일부러 밀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점순이의 행태에 화가 나 홓김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였다.
② ‘나’는 점순이를 평소에 격실격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③ 홓김에 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땅과 집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④ ‘나’는 닭이 죽은 것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을 먹고 무턱대고 ‘그래’라고 대답하였다.

- 3 이 부분에서 ‘동백꽃’은 소설에 봄이라는 계절적인 분

위기를 더해 준다(ㄱ). 또한 노란색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런 시각적 효과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ㄹ).

- 4 ⑨의 ‘아무 말 마라?’라는 점순이의 말은 부모님들끼리 함께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 일과 둘의 사이를 비밀로 하라는 뜻이다.
5 [서술형] ‘나’는 화가 나서 얼떨결에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곧 후회가 되고, 가족이 땅과 집을 빼앗길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멍하니 서 있었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36~41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⑤ 2 ⑤ 3 ④

4 ④ 5 ①, ④ 6 ④ 7 ⑤ 8 ③ 9 평

소와 달리 연재가 먼저 지수의 감정에 대해 질문한 것을 뜻한다.

- 10 ④ 11 ② 12 관계에 기대를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했던 연재가 지수를 만나면서 친구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뜻이다. 13 ② 14 ③ 15 ③ 16 ②

- 1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점순이가 우리 씨암탉을 괴롭히고 수탉을 데려다 싸움을 붙이게 되었고,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지만 또 지게 된다. 그리고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시켜 놓고 호드기를 부는 모습을 본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게 된다.

- 2 점순이는 ‘나’와 점순네 집안의 관계를 인식하고 ‘나’를 괴롭힐 때 이를 이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어 점순이가 자신을 왜 괴롭히는지 알지 못한다.
② 점순이가 ‘나’의 씨암탉을 데려다 때리거나 점순네 닭이 우리 집 닭을 공격해도 ‘나’는 점순이를 직접 제지하지 못하고,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내려치거나 닭을 떼어 놓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③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좋아하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점순이는 일부러 ‘나’의 약을 올리기 위해 ‘나’의 눈에 띠는 곳에서 닭을 괴롭히는 영악한 면을 보이고 있다.

- 3 ‘동백꽃’은 이제 막 사랑의 감정에 눈을 떠 가는 순박한 소년 소녀의 사랑을 의미한다.

4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므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5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을 감자를 전하면서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나'는 이를 점순이가 생색을 내면서 자기 집안 형편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집은 점순네에게 집과 땅을 빌려 살고 있어서 늘상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점순이의 말에 자기 집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③, ⑤ 점순이는 감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6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점순이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점순이의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7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성이다.

8 지수는 평소 무뚝뚝하고 차갑던 연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나요?'는 콜리가 연재에게 한 말로 연재가 지수와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 준 말이다.

④ '이런 방면으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연재이므로'를 통해 연재가 친구와 감정 교류에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지수는 아는 연재는~노력하고 있었다.' 부분을 통해 지수는 연재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연재는 상대에 대해 궁금해하다가도 묻지 않고 포기하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격인데, 콜리의 말에 깨달음을 얻고 지수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10 지수는 연재를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지만, 연재는 지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

오답 해설

① 연재가 지수의 쌀쌀맞은 태도를 지적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연재가 언니를 돌보느라 친구들과 멀어진 것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고 지수와의 갈등의 원인이 아니다.

③ 현재 연재 옆에 유일하게 있는 친구는 지수뿐이다.

⑤ 연재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지수는 연재의 성향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1 연재가 어릴 적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은 몸이 불편한 언니와 관련이 있지만, 이로 인해 언니를 원망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12 ①는 연재를 '돛단배'에, 지수를 '강풍'에 빗댄 문장으로, 지수가 연재의 마음을 흔들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13 '너보다 콜리가 더 인간적이겠다.'라는 지수의 말은 서운함에 투정을 부리듯 한 말로, 연재도 이를 이해하고 지수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주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수는 여전히 성난 투로~아쉽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를 통해 둘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콜리에게 알려 줘야겠다. ~착각하는 것뿐이다.'를 통해 연재는 지수와의 대화 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지수는 연재가 쌀쌀맞게 대해도 연재의 성격을 이해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밝혔다.

⑤ '아쉬움이라는 단어를 꺼내지~설움에 정복당하는 듯했다.'를 통해 연재가 친구 없이 지냈던 외로움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이 글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던 연재가 지수에게 마음을 열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15 연재는 대화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대화 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로 마음먹는다. 지수는 대화 전에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연재에게 서운했지만, 대화 후 연재의 진심을 알고 마음이 누그러진다.

16 이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 밖에서 소설 전체를 조망하는 존재로, 전지적 시점에서 소설 속 사건과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서술하고 있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42~49쪽

1 ⑤ 2 ③ 3 ⑤ 4 ④ 5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이 형편이 어려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6 ③ 7 ⑤ 8 ③ 9 ⑤

10 ① 11 ② 12 ② 13 ③ 14 ⑤은 소설의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왔음을 알려 주는데, 이는 닦싸움을 매개로 이어진다. 15 ④ 16 닦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17 ① 18 ③

19 ① 20 ④ 21 ③ 22 ② 23 ④ 24 ④

25 ③ 26 ④ 27 지수가 대회를 끝으로 예전처럼 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연재가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가)에서 현재 벌어진 닭싸움을 제시하고, (나)에서부터 나흘 전 과거를 회상하여 이와 같은 닭싸움이 시작된 계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현재 → 과거 → 현재'의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② 현재와 과거의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지만, 내화와 외화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아니다.
- ③ 마름과 소작농의 신분 사회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한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주인공의 모습이 어리석게 그려지면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연민과 해학의 대상이지 풍자의 대상은 아니다.

2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먼저 말도 걸고 감자도 건네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나'는 자신의 수탉이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지게막대기로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떠어만 놓았다고 하였다.
- ② 점순이는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말을 걸었다.
- ④ 점순이는 '나'가 감자를 거절하여, 당황스럽고 분하여 급히 자리를 떴다.
- ⑤ '나'와 점순이 사이에 소문이 나면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수 있으므로,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점순이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3 '나'의 집은 마을에 이사 와서 점순네에서 땅과 집을 빌려 살고 있으며, 평소에도 점순이와 마주쳤도 아는 척하지 않는 사이였다.

4 '나'가 점순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5 [서술형] 점순네에서 땅과 집을 빌리고 있어 늘상 굽실거리야 하는 처지에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6 (라)에는 감자를 거절당한 것에 창피하고 화가 난 점순이의 심리가 행동과 외양 묘사로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⑦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은 분하고 화가 나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다.
- ⑧ 점순이가 운 것은 분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7 이 글과 <보기>는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신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서술할 수 있지만,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은 1인칭 관찰자 시점, ②는 3인칭 관찰자 시점, ③과 ④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8 '나'의 독백체는 자신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어 독자에게 친근감을 형성하고, 어리숙한 '나'로 인해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둔다.

오답 해설

- ①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구어체는 소설 속 이야기에 친근감과 사실성을 부여한다.
- ② 이 소설에서는 강원도 지역 방언의 어휘와 억양이 나타난다.
- ④ (가)에서 '나'와 점순이가 다투는 장면에 '이놈의 계집애, 이년아, 망할 계집애 년' 등의 비속어가 사용되었다.
- ⑤ '쪼르르, 찔끔, 깔깔, 킥킥' 등 의성어, 의태어 등을 다수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9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ㄷ). 또한 독자는 어리숙한 서술자의 말과 행동에 웃게 되고(ㄱ), '나'와 점순이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ㄹ).

10 ⑩의 '쥐지르다'는 '쥐어지르다'로, '주먹으로 힘껏 내지르다.'의 의미이다.

11 (나)~(라)에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닭싸움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나'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나)에서는 고추장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다)에서는 '나'의 닭이 공격에 성공해 신이 났다가 곧바로 전세가 역전되자 실망하는 모습이, (라)에는 고추장을 더 먹이지 않은 걸 후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12 사람이 없는 틈만 골라 닭싸움을 붙이는 것은 점순이의 계산적이고 영악한 성격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는 '나'를 괴롭힐 때 어른들의 눈을 피하거나 일부러 '나'의 눈에 잘 띠는 장소를 고르는 등의 영악함을 보인다.
- ③ 점순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요함이 보인다.
- ④ 점순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감정이 거절당했다고 분풀이를 하는 것을 보면 감정을 성숙하게 다룰 줄 모른다.
- ⑤ '나'는 원래 점순이를 좋게 생각했는데, 괴롭힘을 당한 후 점순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3 '망연자실(茫然自失)'은 명하니 정신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말로, 고추장을 먹인 자신의 닭이 이길 줄 알고 기대했다가 실패하자 실망하여 넋을 잃은 '나'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훌려버림을 이르는 말
- ④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의미
- ⑤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 속이라는 뜻으로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갈수록 꼬여 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서술형] 발단 부분에서 벌어진 닭싸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과거 회상을 통해 서술한 뒤, 다시 닭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로 돌아와 서술을 이어 가고 있다.

15 ‘누 집 닭인데?’라는 점순이의 말은 ‘나’에게 마름네 집의 닭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는 곧 자신의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16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은 점순네 수탉의 죽음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화해를 한다.

17 ‘나’는 (가)에서 점순이의 행동에 화가 나 분노에 가득 친다. 이에 (나)에서 핫김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는 데 곧장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다)에서는 점순이가 닭 죽인 것을 안 이르기로 하여, 위기 상황을 모면해 안도감을 느낀다.

18 ‘나’는 닭싸움으로 인해 ‘나’의 닭이 피를 흘리며 죽게 생겼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호드기를 불며 구경하는 점순이의 모습에 화가 나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였다.

오답 해설

- ⑧ 점순네 수탉이 공격한 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수탉이다.
- ⑨ ‘나’는 우발적으로 점순네 수탉을 죽인 것이지 의도하거나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19 이 소설은 아직 사랑의 감정에 서툰 소년과 소녀의 순박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점순이의 짜사랑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나’가 점순이를 짜사랑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③ 동물 학대에 대한 비판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④ ‘나’와 점순이는 소작농과 마름 집안으로 사회적 신분 차이가 있지만, 부모님 몰래 애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 ⑤ ‘나’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질 뿐 풍자의 대상은 아니다.

개념 틀리스

해학과 풍자

(1) 해학

- 뜻: 익살스럽고 품위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인간의 삶이나 사회의 모순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표현 방식
- 특징: 비판의 대상을 동정하고 공감하며, 슬픈 현실 속에서도 여유와 따뜻한 시선을 담아냄.
- 예: 「흥부전」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흥부를 웃기게 표현함.

(2) 풍자

- 뜻: 사회나 개인의 부정적인 면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우회적으로 비꼬아 유머와 함께 드러내는 표현 방식
- 특징: 직접적인 비난 대신 들려 말하거나 비꼬는 방식으로 사회적 모순이나 부조리를 비판함. 보는 사람에게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통쾌함을 느끼게 함.
- 예: 「흥부전」에서 탐욕스러운 놀부의 모습을 웃기게 표현함.

20 점순이와 달리 아직 이성의 감정에 관심이 없었던 ‘나’는 점순이와 화해를 하면서 어렴풋이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게 되는데, 첫사랑의 풋풋한 느낌이 동백꽃의 알싸한 향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

21 <보기>는 소설의 주인공과 서술자가 ‘나’에서 점순이로 바뀌었을 뿐, 서술자가 소설 속의 점순이인 ‘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1인칭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 3인칭 서술자는 소설 밖에 존재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보기>는 서술자가 점순이이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점순이가 ‘나’의 속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 ④ ‘내 마음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나의 마음을 받아 주기로~’ 등의 표현을 통해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⑤ ‘이 정도 했으니 내 마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았을 거다.’에 이제까지 점순이가 ‘나’를 괴롭힌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22 (가)에서는 ‘나’와 점순이 사이, (나)~(라)에서는 연재와 지수 사이에 발생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23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 이외의 인물의 심리를 잘 알 수 없지만, (나)~(라)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속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라)는 모두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③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라)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 ⑤ (가)는 작품 속 주인공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나)~(라)는 작품 밖 전지적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된다.

24 (나)에서 연재는 어릴 적에 언니 은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서 도와줘야 해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다.

25 (나)~(라)에는 관계에 대한 상치를 갖고 외롭게 지내던 연재가 지수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임을 알아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26 ⑦은 혼자인 것에 익숙한 연재의 마음을 지수가 혼들어 연재가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7 [서술형] 지수는 자신이 연재를 친하게 여기는 것처럼 연재도 자신을 친하게 여겨 주기를 바라는데, 연재는 관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

- 1 ④ 2 ②, ⑤ 3 ⑤ 4 ③ 5 ④ 6 ⑤
 7 ④ 8 ③ 9 ② 10 가을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
 에 울림과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 11 ④ 12 ⑤
 13 ② 14 ① 15 ② 16 닭싸움 17 ③
 18 ① 19 ① 20 ③ 21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
 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며,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 준다.
 22 ① 23 ④ 24 ④ 25 ④

1 (가)의 화자는 작은 힘이라도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말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사람이 아닌 존재를 의인화한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 ② (나)의 화자는 '나'로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학생)이고, (나)의 화자는 귀뚜라미로 둘 다 시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가), (나)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2 (가)에서는 1연과 2연에서 각각 화자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대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매미와 귀뚜라미의 처지를 대조하고 있다. 또한 (가)에서는 '～ㄹ 수 있고'와 '～ㄹ 수 있어'를 반복하고, (나)에서는 '～ㄹ 수 있을까'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 2연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이다.
- ③ 설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나)의 2, 3연의 마지막 시구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이다.
- ④ (나)에서 '소리', '울음', '귀뚜르르 뚜르르', '타전 소리' 등의 시어를 통해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가)는 4연에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3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파도를 헤쳐 나가는 '은빛 물고기'에 빗대어 작은 힘이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이 시는 온몸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도를 헤쳐 나가는 은빛 물고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씩씩하게 실천해 나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전하는 삶의 가치나 시련과 역경의 극복 과정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 ③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④ 어려움을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겨 내는 모습을 반짝이는 은빛

물고기로 표현한 것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소망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4 '차가운 바다', '토하는 울음', '좁은 틈', '숨 막힐 듯' 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으며,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현재는 여름으로 매미 소리에 묻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귀뚜라미는 이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계절인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 ④ 화자인 귀뚜라미는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타전 소리를 내고 있다.
- ⑤ 귀뚜라미의 과거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5 (나)의 화자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자신이 살아 있다는 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어린 화자의 씩씩하고 당찬 다짐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③ 화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찾고 있다.
- 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을을 기다리며 타전 소리를 내고 있는 귀뚜라미의 모습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6 <보기>의 화자는 '～해 보렴', '행동해야 한단다'와 같이 교훈적인 어조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의 필요성을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③ <보기>의 화자는 '너'가 하기를 바라는 일들과 바람직한 행동의 자세를 전하며 행동의 변화를 권유하고 있다.
- ②, ④ [A]에서 학생이던 화자가 <보기>에서 성인으로 바뀌고 행동 변화를 권유하는 데서 교훈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7 (나)는 화자를 가을을 기다리는 존재인 귀뚜라미로 설정하여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귀뚜라미는 가을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며, 인간 문명으로 훼손된 자연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②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으며, 독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 ③ 귀뚜라미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작고 약한 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친근하고 정겨운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 ⑤ 가을을 기다리는 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하여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는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8 ④은 자신의 행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는 자세를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① 화자가 할 수 없는 일이다.
- ② 화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 ④ 화자는 어리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⑤ 어려움을 이겨 내고 용감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신속한 실행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9 ⑥의 ‘노래’는 가을이 되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귀뚜라미 소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남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귀뚜라미 소리로 여름을 견디며 내는 소리에 해당한다.

10 [서술형]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자신의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는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은 자신의 울음을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노래로 완성시키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11 이 글은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점순이와 이를 모른 채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즉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⑤ 이 글은 강원도 산골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며, 사투리를 통해 향토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
- ② 닭싸움을 통해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이 대립되며 사건이 전개된다.
- ③ ‘고놈의 계집애’, ‘이놈의 닭!’에는 각각 ‘나’와 점순이의 심리가 담겨 있다.

12 (마)에서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한 것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일 뿐, 고추장을 먹인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 ①, ②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준 호의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양깊음으로 닭싸움을 끌고 싶어 있다.
- ③ 점순네와 ‘나’의 집은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이다.
- ④ 점순이는 ‘나’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려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고 있다.

13 ‘나’와 점순이 사이에 닭싸움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점순이가 화가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나)이다.

14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와 주

인공이 일치한다. 따라서 서술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오답 해설

-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⑤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5 점순이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감자를 건네며 호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게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양깊음으로 ‘나’의 닭을 괴롭히는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인 편이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 감자를 건네고 ‘나’의 관심을 끌고 싶어 닭싸움을 벌인다.
- ③ 일부러 ‘나’가 더 잘 보이는 곳에서 닭싸움을 붙이는 모습에서 점순이의 영악함이 드러난다.
- ④ 점순이는 ‘나’를 좋아해서 감자를 준 것인데, ‘나’는 점순이가 생색을 내기 위해 감자를 줬다고 오해한다.
- ⑤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닭싸움에 대비하는 모습에서 ‘나’의 순박하면서도 어리숙한 모습이 드러난다.

16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일부러 닭싸움을 붙이고 있는데, ‘나’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닭싸움에서 이기려고 자기네 수탉에게 고추장까지 먹이며 점순이와 갈등하고 있다.

17 (나)에서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받지 않은 것은 ‘느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 ‘나’가 기분이 상한 근본적인 이유는 마름과 소작농이라는 두 집의 관계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⑦과 같이 말한 것이다.
- ② ⑦에서 ‘나’는 점순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감자를 거절하였다.
- ④ ⑧에서 점순이는 감자를 거절당한 양깊음을 ‘나’의 씨암탉에게 하고 있다.
- ⑥ ⑨은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반격을 당한 것에 실망한 ‘나’의 모습에 해당한다.

18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풀이면서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19 (가)에는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모습이, (나)에는 연재와 지수가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에만 해당한다.
- ③, ④, ⑤ (나)에만 해당한다.

20 닭싸움으로 인해 ‘나’의 수탉은 빈사지경에 이른 것으

로 나을 뿐 죽었다고는 서술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에서 점순이에 대한 '나'의 부정적 평가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 ② 점순이는 '나'가 '그래!'라고 대답한 것을 '나'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 주었다고 여긴다.
- ③ '가만히 생각을 하니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에서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에서 '나'가 점순이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1 [서술형] '나'와 점순이는 화해 후 한창 피어 펴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함께 쓰러지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낸다. 노란 동백꽃은 계절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봄에 막 피어나는 꽃처럼 이제 막 시작되려는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22 (나)에 나타난 주된 갈등은 서운한 마음의 표현 여부를 두고 다른 태도를 보인 연재와 지수 사이의 외적 갈등이다.

오답 해설

- ② 지수가 연재에게 대회에 함께 참가하자고 제안하였고, 연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 ③ 지수는 연재를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으며, 연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에 토라진 것이다.
- ④ 연재는 지수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편안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 ⑤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을 지수가 싫어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23 지수는 연재에게 화가 났지만, 연재에게 먼저 다가가고 연재의 차가움도 받아 주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

24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며, (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의 폭이 넓으며,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할 수 없었던 주인공 외 다른 인물의 심리를 모두 서술할 수 있다(ㄷ). 또한 서술자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논평도 한다(ㅁ).

오답 해설

- ㄱ, ㄴ. 주인공의 과거와 속마음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도 서술이 가능하다.
ㄹ.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5 연재는 지수를 통해 진솔하게 마음을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점순이에게 바람직한 소통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56~59쪽

- 1 ⑧ '～ㄹ 수 없고', '～ㄹ 수 있고', '～ㄹ 수 있어' ⑥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을 강조한다.
- 2 ⑨ '나' ⑩ '학교', '교실', '학교 도서관' 등 ⑪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자 한다.
- 3 ⑪ 원관념: '나'(화자) ⑫ 이유: 은빛 물고기는 온몸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용감하게 파도를 헤쳐 나간다. 화자는 남을 배려하고 돋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이러한 은빛 물고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4 ⑬ 귀뚜라미를 의인화하여 화자로 설정하였다. ⑭ 가을을 기다리는 존재인 귀뚜라미를 통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5 (나)의 화자에게 '여름'은 매미 소리에 묻힌 울음을 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시간을 견디며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은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 6 ⑮ 공감을 얻는 것: [A] ⑯ 공감을 얻는 이유: <보기>의 화자는 성인으로, 교훈적인 어조로 남을 돋고 배려하며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A]의 화자는 청소년으로, 밝고 씩씩한 어조로 작은 힘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어서 또래인 청소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7 ⑰ (나)–(다)–(라)–(마)–(가)–(바)–(사) ⑱ 현재 → 과거 ⑲ (바) ⑳ 나흘 전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사건을 회상하여 '나'와 점순이 사이에 닦싸움이 시작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8 ㉑ 김자를 주면 내가 자기한테 관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㉒ 우리 집에 감자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 9 ㉓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한 앙갚음을 하면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닦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눈치가 없어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행동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10 ㉔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소설 속에 위치하며, 주인공의 심리는 서술할 수 있지만 다른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없다.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소설 밖에 위치하며, 소설 속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자세히 서술할 수 있다.

평가 요소 공통된 표현 방법 파악하기

- 1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에서는 '～ㄹ 수 없고', '～ㄹ 수 있고', '～ㄹ 수 있어'를 반복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다는 다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또 (나)에서는 '～ㄹ 수 있을까'를 반복하며 누군

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④, ⑥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④, ⑥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화자의 특성 이해하기

- 2 이 시의 화자는 ‘나’로, ‘학교’, ‘교실’, ‘용돈’, ‘학교 도서관’, ‘어리지만’ 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학생(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시의 화자는 아직 어리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씩씩하게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돋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④, ⑤, ⑥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④, ⑤, ⑥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7점
④, ⑤, ⑥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비유적 표현 파악하기

- 3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은빛 물고기’에 빗대어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④를 밝히고, ⑤를 <조건>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④를 밝히고, ⑤를 <조건>에 맞게 두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7점
④를 밝히고, ⑤를 <조건>에 맞게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화자의 설정 효과 파악하기

- 4 이 시는 귀뚜라미를 의인화한 화자를 통해 가을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현하였다. 이는 힘든 여름을 이겨내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가을을 기다리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준다.

채점 기준	배점
④와 ⑥에 모두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10점
④와 ⑥ 중에서 한 가지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 5 귀뚜라미에게 ‘여름’은 시련의 계절, ‘가을’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로 그려지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여름’의 의미와 ‘가을’의 의미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여름’의 의미와 ‘가을’의 의미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화자 설정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 이해하기

- 6 독자가 청소년이라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화자가 노래하는 [A]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독자에게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이유를 <조건>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독자에게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이유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소설의 역순행적 구성 파악하기

- 7 이 소설은 시간이 ‘현재 → 과거 → 현재’ 순으로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와 과거를 이어 주는 매개체는 ‘나’와 점순이 사이에 벌어진 ‘닭싸움’이다. 독자는 나흘 전 감자 사건을 통해 ‘나’와 점순이 사이에 닭싸움이 시작된 이유를 알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④, ⑤, ⑥, ⑦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④, ⑤, ⑥, ⑦ 중 세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7점
④, ⑤, ⑥, ⑦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 8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건넨 것은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나’는 점순이가 ⑦과 같이 말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다.

채점 기준	배점
④와 ⑦ 모두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④와 ⑦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2

설득력 있는 논증, 이해하기 쉬운 설명

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62~63쪽

| 핵심 확인 문제 | 1 논증 2 (1) ○ (2) ⊖ 3 연역
 4 ○ 5 × 6 ③ 7 귀납

1 논증은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리적인 설명이고,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이다.

3 연역은 일반적 원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으로, 삼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 논증이다.

4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글쓴이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주장이 타당한지 파악해야 한다.

6 재생 건축의 사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므로 근거에 해당한다.

7 의미 있는 옛 건축물을 재생하여 가치 있는 건물이 된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고, 의미 있는 옛 건축물을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에 해당한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64~65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1 | 1 ③ 2 ① 3 ② 4 첨

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화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에다. 5 ②

평가 요소 서술자의 설정 효과 이해하기

- 9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한 앙갚음을 하면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닭싸움을 하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나’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진하고 어리숙하게 행동한다. 이처럼 이 소설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화자로 설정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서술자의 설정 효과를 <조건>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서술자의 설정 효과를 썼으나, 점순이의 심리와 ‘나’의 성격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개념 틀러스

신뢰할 수 없는 화자(신빙성 없는 화자)

- 개념: 서술자의 신뢰성을 현저히 낮춰 독자나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법
- 유형
 - 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 ②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객관적인 서술이 어려운 경우
 - ③ 나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세상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
- 효과
 - ① 독자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의 숨겨진 진실을 추론하게 만들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흥미를 유발함.
 - ② 독자가 화자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화자의 왜곡된 시각이나 거짓말을 밝혀내며 충격적인 반전을 줌.
 - ③ 작가는 신빙성 없는 화자를 통해 인간 심리의 복잡성, 편견, 왜곡된 인식 등의 주제를 탐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평가 요소 시점에 따른 서술의 차이 파악하기

- 10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에서 서술되며,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된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 서술자가 서술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채점 기준	배점
두 글에 나타난 시점을 밝히고, 시점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두 글에 나타난 시점을 밝히고, 시점의 차이를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7점
두 글에 나타난 시점만 적절하게 밝힌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 1 ②에서 글쓴이는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허물어 버리지 말고,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의 모습이나 용도를 바꾸어 오래된 건물을 되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②에서 글쓴이는 폐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재생 건축이 유용하다고 하였는데, 재생 건축은 오래된 건물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를 현대 생활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 ② ②에서 글쓴이는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허물어 버리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 오래된 건물을 없애는 대신 재생하여 보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④ ②에서 글쓴이는 재생 건축이 외관이 아닌 내부의 모습이나 용도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서 재생 건축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②에서 글쓴이는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말고 재생하여 보존하는 재생 건축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대체하자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런 작업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 2 ①에서 글쓴이는 ‘옛 건물을 허물고 ~ 과연 바람직한 미래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폐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①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④ ②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을 뿐, 글쓴이 자신의 경험이나 구체적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 ⑤ ③에서 글쓴이는 재생 건축의 이점을 통해 재생 건축이 유용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 3 ③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기존 건축에 쓰였던 자재 일부를 활용하므로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과 건축물이 품었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오답 해설

- ㄴ, ㄷ 재생 건축은 오래된 건축물의 골조는 유지한 채 내부를 개조하여 새로운 기능과 용도로 공간을 재창조함으로써 과거 건축물이 지닌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시험하거나 자동화 방식의 산업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4 [서술형] ①에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과 로봇이 일하는 자동화 방식으로 화력 발전소나 공장과 같은 산업용 건물들의 가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 5 ①에서 글쓴이는 옛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이 미래 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⑤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66~67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2 | 1 ③ 2 ④ 3 ③ 4 아름다운 외관은 그대로 살리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주거 공간을 편리하게 바꾸었다.

- 1 ④에서는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⑤에서는 독일의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 ⑥에서는 한국의 북촌 한옥 마을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재생 건축이 지닌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 2 성공적인 재생 건축의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옛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으므로 이 글에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였다. ④에서도 영희와 철수의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수업 태도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⑥은 모두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삼단 논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삼단 논법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에 해당한다.

- 3 ⑤에서 ①을 허물지 않고 개조하여 만든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 산업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⑦과 ⑧이 재생 건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⑤ ⑦은 공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산업용 건물로 20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었다고 하였고, ⑧은 한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용 건물로 석탄 고갈과 환경 문제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채 해체될 위기를 맞았다고 하였다.
- ④ ⑦과 ⑧은 모두 버려진 옛 건물로 재생 건축의 대상이 되어 각각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 4 [서술형] ⑥에서 북촌 한옥 마을은 아름다운 옛 모습은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편리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였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68~69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3 | 1 ④ 2 ④ 3 ② 4 재생 건축이 현대적인 도시 전체의 미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1 9에서 글쓴이는 의미 있는 건축물은 보존하고 재생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에서는 재생 건축이 필요함을 환경 문제와 관련지어 다루지 않았다.
- ② 이 글에서는 과거의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의미 있는 건축물을 재생하여 되살려야 한다고 하였다.
- ③ 이 글에서는 재생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독창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 ⑤ 재생 건축은 옛 건축물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은 유지하되 기능이나 용도 등을 현대 생활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2 9는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9에서 글쓴이는 재생 건축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7은 재생 건축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을 다루고 있고, 8은 그 반론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을 다루고 있다.
- ⑤ 9는 이 글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을 뿐,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는 내용은 없다.

3 글쓴이는 예상되는 반론으로 제시한 ⑦에 대해 8에 서 반박하고 있다. 재생 건축은 건축물을 허물 때 생기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줄고 건축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전체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재생된 건축물이 관광 자원이 되어 해당 도시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ㄴ. 8에서 글쓴이는 재생 건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유는 건축물을 허물 때 생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고 건축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ㄹ. 8에서 글쓴이는 재생 건축은 전체 건축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 건축이 비용과 상관없이 가치가 높다는 것은 글쓴이의 반박으로 보기 어렵다.

4 [서술형] 예상되는 반론은 7에 소개되어 있다. 첫째, 재생 건축이 현대적인 도시 전체의 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 둘째,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비판이 그 반론에 해당한다.

교과서 활동 정답하기

본문 70~76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② 2 ④ 3 ①

4 ⑤ 5 ③ 6 포유류이다 7 ③ 8 ⑤ 9 ⑤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① 15 ④

16 압축한 내용만 주로 보다 보면 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17 ③ 18 ①

1 재생 건축의 개념은 2에, 재생 건축의 사례는 4~6에, 재생 건축의 이점은 3에 제시되어 있다.

2 글쓴이는 재생 건축이 유용함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오래된 건축물을 재생하여 사용하면 기존 자재를 활용하여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⑤ 글쓴이가 재생 건축을 주장하는 이유는 3에 제시되어 있는데, 글쓴이는 재생 건축을 통해 자원을 아끼고 과거 건축물이 지닌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재생 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바꾼다거나 환경 오염을 방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현대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은 이유로 제시되지도 않았고 적절하지도 않다.

3 이 글에서 근거로 제시된 것은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독일의 콜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 한국의 북촌 한옥 마을로, 이는 모두 재생 건축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4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귀납 논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사실이 많을수록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답 해설

- ㄱ과 ㄴ은 모두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연역 논증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며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삼단 논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5 이 글의 제재는 재생 건축이며 주제는 재생 건축의 필요성과 가치이다.

6 빙칸에는 소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대전제와 결론을 고려할 때, 소전제에는 고양이가 포유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7 글쓴이의 주장은 재생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 건축의 문제점을 지적한 ⑦은 주장에 대한 반론이고, 이 반론에 대해 다시 반대 의견을 내세운 ⑧은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한다.

8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실으면 논제에 대해 독자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할 수 있고,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주장을 강조할 수 있다.

9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에 대한 반론 및 그 반론에 대한 반박은 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반론과 반박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논증 요소 중 하나인 주장이 타당한지 평가해야 한다.
- ②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해야 한다.
- ③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논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그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 ④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사용된 논증 방법이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10 이 글에서 글쓴이의 경험에 근거로 제시된 부분은 없으며,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독일의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 한국의 ‘복춘 한옥 마을’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11 밑줄 친 부분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리적인 설명으로, 주관적인 생각에 해당하므로 주장을 내세우게 된 까닭인 이유에 해당한다.

12 ④에서 동영상이 1분을 넘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시청은 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②에서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우리 뇌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 ② ④에서 어릴 때부터 짧은 영상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조금이라도 긴 영상이나 글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 ③ ①에서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이 나쁜 이유는 짧은 영상 시청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④ ⑤에서 짧은 영상을 계속 보면 영상에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하였다.

13 ①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②~④에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 ㄷ, ㄹ. ③과 ④는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③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④에서는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4 이 글은 짧은 영상이 청소년에게 나쁘다는 주장을 내세워 청소년들이 짧은 영상의 시청 시간을 줄이기 바라는 의도로 쓰였다. ⑥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도 한정된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 하면서 짧은 영상의 시청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독자(청소년)를 설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③ ⑤에서 언급한 짧은 영상의 좋은 점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이를 다시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짧은 영상의 좋은 점을 알려 주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이 글에는 짧은 영상의 제작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글쓴이는 ⑥에서 짧은 영상을 시청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짧은 영상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설명하고자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없다.

15 글쓴이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한국뇌연구원의 김○○ 박사와 같은 전문가, ○○ 미디어 연구소와 같은 전문 기관의 말을 제시하고, ○○ 미디어업체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16 글쓴이는 압축한 내용만 주로 보게 되면 나중에는 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짧은 영상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17 ②에서 글쓴이는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우리 뇌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전제–소전제–결론’의 형식을 따르는 삼단 논법인 연역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이다.

18 글쓴이는 ⑥에서 짧은 영상을 시청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ㄱ).

글쓴이는 ②에서 짧은 영상의 문제점으로 짧은 영상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ㄴ).

글쓴이는 ④에서 짧은 영상의 부정적 영향으로 긴 영상이나 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ㄹ, ㅁ. 이 글은 짧은 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청소년들이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짧은 영상을 시청할 때의 바른 자세나 짧은 영상 시청으로 인해 친구 관계에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77~81쪽

1 ③ 2 ⑤ 3 ① 4 ① 5 ① 6 ④ 7 ③

8 의미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9 ⑤ 10 ④ 11 ① 12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13 ④ 14 ③

1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장이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

며 읽어야 한다.

- 2 (자)는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재생 건축을 통해 ‘의미 있는 건축물은 보존하고 재생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재생 건축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이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서론’에 해당하는 (가)는 옛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행위에 대한 의문 제기를 담고 있고, ‘본론 1’에 해당하는 (나), (다)는 재생 건축의 개념과 이점을, ‘본론 2’에 해당하는 (라)~(바)는 재생 건축의 사례 소개를, ‘본론 3’에 해당하는 (사), (아)는 재생 건축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과 반론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3 (라)에서 영국의 ‘뱅크 사이드’가 20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아)에서 폐건물 철거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고 건축 자원의 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가)에서 사람들은 폐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폐건물을 철거를 아쉬워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④ (아)에서 재생 건축을 통해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지킬 때 그 건축 문화는 독창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재생 건축을 하면 건축 문화의 독창성을 잃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⑤ (마)에서 독일의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는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산업용 건물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 4 (나)에서 글쓴이가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허물어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 것은, 글쓴이가 주장하려는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다)에는 글쓴이가 주장을 내세우는 까닭인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③ (라)~(바)에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④ (사)에는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인 ‘반론’이 제시되어 있다.
⑤ (아)에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 5 (라)~(바)에 제시된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 의미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 낸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6 (나)에서 재생 건축은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의 모습이나 용도를 현대 생활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재생 건축으로 내부와 외부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였고, (아)에서 전체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기존 건축에 쓰였던 자재 일부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였고, (아)에서 건축 자원을 재활용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과거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과거 건축물이 품었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 7 ⑤은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재생 건축이 현대적인 도시 전체의 미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공사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건축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ㄷ. (사)에서 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재생 건축이 그 지역의 몇몇 건축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정도 어렵고 시간도 더 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생 건축이 지역 전체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지 않는다.

- 8 [서술형] (자)에서 글쓴이는 ‘의미 있는 건축물은 보존하고 재생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재생 건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9 이 글은 짧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청소년이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은 왜 나쁠까?’라는 질문을 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다)에서 ‘○○ 미디어 연구소’라는 전문 기관의 설명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라)에서 ‘○○ 미디어업체’의 설문 결과를 인용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④ (나)에서 ‘한국뇌연구원의 김○○ 박사’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10 (나)에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지닌 길이가 긴 영상과 달리 짧은 영상은 자극적인 장면만을 편집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소트 품은 15~6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라고 하였다.
② (가)에서 짧은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이용자가 많았다고 있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짧은 영상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글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우리 뇌는 자극적인 장면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11 ⑦은 청소년이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이 나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글쓴이가 짧은 영상은 청소년에게 나쁘다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⑦은 이유, ⑤은 근거, ⑥은 예상되는 반론, ⑧은 반론에 대한 반박에 해당한다.

개념 틀리스

짧은 영상의 장단점

장점	• 즉각적인 재미와 자극 제공 • 가벼운 오락 요소로 활용 가능
단점	• 저작권을 어긴 불법 영상의 확산 •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의 감소 및 인지력 약화

12 [서술형] (나)에서는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이루어진 삼단 논법을 사용하여 연역의 방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⑧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대전제는 ‘우리 뇌는 ~ 빠지게 된다.’이고, 소전제는 ‘짧은 영상을 ~ 노출되는 것이다.’이다.

13 (가)에서는 재생 건축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에서는 전문가인 한국뇌연구원의 견해를 객관적 자료인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가)와 (나)에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인 반론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반론에 대한 반박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이 나쁜 이유를 ‘짧은 영상 시청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지는 않았다. (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였을 뿐,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지는 않았다.
⑤ (가)의 4문단의 내용 중 ‘옛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사례’라고 한 부분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짐작할 수 있을 뿐, (가)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반복하여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글쓴이는 ‘청소년이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은 왜 나쁠까?’라고 질문을 하여 짧은 영상은 청소년에게 나쁘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주장을 반복하여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14 (가)에는 재생 건축의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재생 건축이 지닌 가치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 낸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였고, (나)에는 중독 현상의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짧은 영상에 관한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낸 연역의 논증 방법이 쓰였다.

2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고 글 쓰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82~83쪽

| 핵심 확인 문제 | 1 비교와 대조 2 (1) ① (2) ② (3) ⑦
3 정의, 예시 4 ④ 5 ⑤

1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와 대조’이다.

2 (1) 꽃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방법이 쓰였다.
(2) 과일의 수확량이 감소한 원인이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쓰였다.
(3) 기준에 따른 음식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류와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

3 개념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것은 정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예시에 해당한다.

4 자외선이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특징을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므로 예시의 방법이 쓰였다.

5 양궁 경기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와 구분의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84~85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1 | 1 ① 2 ③ 3 ⑤ 4 대상의 뜻을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이 쓰였다.

1 이 글은 정보 전달이 목적인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에서 다루는 주요 정보를 확인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건의 사항을 메모하며 읽어야 할 글은 특정 독자에게 건의할 내용을 담은 글인 건의문이다.
③ 근거의 탄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할 글은 근거를 들어 글쓴이의 의견을 내세우는 글인 논설문이다.
④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나 느낌에 공감하며 읽어야 할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쓰는 수필이다.
⑥ 창의적 표현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할 글은 문학 갈래의 글이다.

2 ③에서 자외선은 특히 에너지가 많아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

하여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개발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❶에서 햇빛이 강렬한 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일은 필수라고 하였다.
- ② ❷에서 가시광선 바깥쪽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다고 하였다.
- ④ ❸에서 사람이 자외선을 오랫동안 쪼이면 피부 세포 속의 디엔 애이가 손상을 입고 심하면 피부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 ⑤ ❶에서 자외선은 우리 몸의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디를 합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3 ❸에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예로 들어 자외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ㄷ). ❸에서 인과의 방법으로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아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ㄹ).

오답 해설

- ㄱ. ❷에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뜻을 밝혀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기 위해 사용한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 ㄴ. ❷에서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며 자외선이 태양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하나임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한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4 [서술형] ⑦에서는 적외선과 자외선의 뜻을 풀이하여 알려 주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86~87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2 | 1 ③ 2 ⑤ 3 ③ 4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이나 모자를 쓰거나 긴 옷을 입는다.

1 ❶에서는 자외선을 막는 방법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나누고, 각각의 장단점을 통해 종류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❶의 중심 내용은 자외선의 종류와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이다. 자외선 자체의 기능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② ❽의 중심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용어의 의미이다.
- ④ ❾의 중심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 및 자외선 차단 방법이다.
- ⑥ ❿의 중심 내용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글쓴이의 당부이다.

2 '자외선을 막는 방법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도 두 가지로 나뉜다.'에는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ㄷ).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차단제는 ~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에는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ㄹ).

3 ⑦에는 에스피에프와 숫자의 의미를 '에스피에프 50'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쓰이고 있다. ⑧에서도 구기 종목을 야구,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등의 예로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쓰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은 구분, ②는 정의, ④는 인과, ⑥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4 [서술형] ⑦에서 사람의 피부만으로는 자외선을 막을 수 없기에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 또는 모자를 쓰거나 긴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교과서 활동 정답하기

본문 88~93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④ 2 ④ 3 ④

4 ⑤ ⑤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의 차이를 알려 줄으로써 각 차단제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6 ① 7 ⑤ 8 ⑤ 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① 14 ②

1 이 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자외선의 종류는 ❶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② 태양 빛의 구성 요소는 ❷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는 ❸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자외선이 사람에게 해로운 까닭은 ❹에서 설명하고 있다.

2 이 글은 자외선의 특징과 자외선 차단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쓴 설명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자외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다루는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자외선 노출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는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별 장단점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자외선 차단제의 문제점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분석은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류와 구분'이다.

4 ⑦은 태양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분석의 방법으로, ⑧은 자외선의 종류를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5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를 견주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별 특성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 6 글의 구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짤 때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7 양궁의 기원에 관한 정보는 이 글에서 다루려는 양궁의 특징이나 한국 양궁의 강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양궁의 개념, 양궁 경기의 종류, 양궁에 쓰이는 활의 구조 등에 관한 자료는 양궁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 ④ 한국 양궁이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는 까닭을 분석한 자료는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 8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선정할 때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 독창적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9 일반적으로 고쳐쓰기는 글쓰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개요 주제, 구성 단계, 내용, 사용할 설명 방법이나 자료 등을 작성한다.
- 10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의 훈련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려는 것은 예시의 방법에 해당한다.
- 11 이 글은 2~4문단에서 양궁의 뜻, 활의 구조, 양궁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고, 5문단과 6문단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나라 양궁과 유럽 양궁의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은 없다.

오답 해설

- ⑨는 2문단, ⑩는 3문단, ⑪는 4문단, ⑫는 5문단과 6문단에 제시된 내용이다.
- 12 ⑬은 양궁을 활을 당기는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⑭에는 양궁의 뜻을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이 쓰였다.
- ② ⑮에는 양궁의 활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쓰였다.
- ④ ⑯에는 양궁의 두 종류인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
- ⑤ ⑰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쓰였다.

- 13 ⑭은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국가대표를 선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궁의 경쟁력이 유지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을 독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있는 것이다.

- 14 글쓴이는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 글의 주요 설명 내용을 '양궁의 특징과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이라고 요약하였다.

소단위 예상 문제

본문 94~97쪽

- 1 ③ 2 ④ 3 ① 4 ④ 5 ⑤ 6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7 ④ 8 ⑤ 9 ⑤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공정한 양궁 국가대표 선발 과정 때문이다.

- 1 이 글은 정의, 예시, 인과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통해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ㄷ).
- (가)에서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ㅌ).
- 자외선의 특징과 자외선 차단 방법이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ㅂ).

오답 해설

- ㄱ.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이므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ㄴ. 이 글에서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ㅁ. 이 글에서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통계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 2 (가)에서 자외선은 가시광선 바깥쪽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우리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무지개 색상은 가시광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태양 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자외선은 태양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 ② (다)에서 자외선 시는 대부분 지구의 오존층에 흡수되고 자외선 에너지와 자외선 비만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자외선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에서 자외선의 뜻이 가시광선의 보라색(자색) 바깥에 있는 빛이라고 하였으므로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바깥쪽에 있는 빛이다.
⑤ (나)에서 자외선은 특히 에너지가 많아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개발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자외선이 지닌 강한 에너지 때문에 자외선을 활용한 살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외선이 우리 몸에 해로운 까닭은 (나)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바)에 답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 ㄷ.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용어의 의미,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와 종류별 장단점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으나 자외선 차단제가 처음 사용된 시기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ㄹ. 자외선에 의해 피부 세포 속 디엔에이가 손상을 입고 심하면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피부가 손상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라)는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용어인 에스피에프와 피에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예를 드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분석의 방법을,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의 뜻을 설명할 때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자외선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② (나)에서는 자외선의 특징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개발한 제품인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 자외선이 지닌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③ (다)에서는 자외선 시가 대부분 지구의 오존층에 흡수되기 때문에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만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종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⑥ (마)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가 각각 어떤 장단점을 지녔는지를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5 (바)에서 사람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가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표피만으로는 자외선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날에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마)에서 자외선을 반사하는 차단제는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피에이는 자외선 에이의 차단 정도를 표시한다고 하였고 '+가 많을수록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에스피에프는 자외선 비의 차단 정도를 표시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④ (마)에서 자외선을 열로 바꾸는 차단제는 피부에 투명하게 발리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였다.

6 [서술형] ①에는 자외선의 종류를, ②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7 ①에서 표피만으로 자외선을 막을 수 없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②에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④에서도 침엽수가 벌레에 취약하고 잘 썩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하려면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 ①은 예시, ②는 대조, ③은 정의, ⑤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쓰인 것이다.

8 이 글에서는 양궁의 특징과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으로 강한 까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궁의 특징은 (가)~(다)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은 (라)와 (마)에서 설명하고 있다.

9 (가)에서 양궁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서양식 활인 양궁은 우리나라 전통 활인 국궁과 구별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국궁 활의 재료나 종류를 설명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10 (나)에서는 양궁의 활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양궁의 뜻을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③ (다)에서는 양궁의 두 종목인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④ (라)에서는 우리나라 양궁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⑤ (마)에서는 우리나라 양궁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11 (가)와 (나)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 (가)에는 자외선의 종류 및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설명할 때 '구분'이,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만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되는 까닭을 설명할 때 '인과'가, 에스피에프와 숫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예시'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별 장단점을 설명할 때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나)에는 우리나라 양궁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을 설명할 때 '예시'가,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을 설명할 때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따라서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쓰인 설명 방법은 ‘인과’와 ‘예시’이다.

오답 해설

ㄴ, 르. ‘정의’와 ‘분석’은 (가)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 13 (가)에는 자외선의 종류와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용어의 의미,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막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외선이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자외선의 종류에 자외선 에이, 자외선 비, 자외선 시가 있다는 정보는 (가)의 1문단에 나와 있다.
②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정보는 (가)의 1문단에 나와 있다.
③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용어인 에스피에프와 피에이의 의미에 대한 정보는 (가)의 2문단에 나와 있다.
④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막는 방법에는 자외선을 반사하거나 자외선을 열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정보는 (가)의 3문단에 나와 있다.

- 14 [서술형] (나)에서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으로 강한 까닭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본문 98~103쪽

- 1 ③ 2 재생 건축은 현대적인 도시 전체의 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재생 건축은 비용이 더 많이 듈다. 3 ⑤ 4 ⑤
5 ② 6 ③ 7 ④ 8 ① 9 ① 10 ②
11 ⑦과 ⑨의 설명 대상은 각각 태양 빛과 양궁의 활이다. ⑦과 ⑨에는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쓰였다. 12 ⑤ 13 의미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4 ③ 15 ②
16 ③ 17 ⑤ 18 ⑤

- 1 (가)의 4문단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5문단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도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는 ‘한국뇌연구원의 김○○ 박사’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가)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지 않았다.
② (나)에서는 ‘○○ 미디어업체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나, (가)에서는 설문 결과가 활용되지 않았다.

- ④ (가)에서는 재생 건축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문제 현상을 다루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짧은 영상 시청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형태로 주장을 강조하고 있을 뿐,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지 않다.

- 2 [서술형] ①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가)의 4문단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재생 건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생 건축이 현대적인 도시 전체의 미관과 어울리지 않고, 비용이 더 많이 듈다며 비판한다고 하였다.

- 3 글쓴이는 버려진 산업용 시설을 허물지 않고 이를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용도의 공간을 재창조한 사례를 들며 재생 건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 시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에 어긋난다.

- 4 (나)의 4문단에 동영상이 1분을 넘으면 이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도파민 분비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2문단에서 짧은 영상 시청의 첫 번째 문제점은 중독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청소년이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이 나쁜 까닭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나)의 3문단에서 짧은 영상 시청의 두 번째 문제점은 휴대 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짧은 영상의 세 번째 문제점은 긴 영상이나 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고, 5문단에서도 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 5 ⑦과 ⑨은 글쓴이가 주장을 내세우는 까닭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유’에 해당한다. ⑦과 ⑨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이고, ⑪과 ⑬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 기관의 견해나 객관적인 설문 결과이므로 ‘근거’에 해당한다.

- 6 (나)의 4문단에서 양궁의 두 종목인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견주어 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쓰였으나, (가)에는 대조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고, (나)의 2문단에서 양궁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이 쓰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자외선이 생물의 세포를 파괴하는 원인이에너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3문단에서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만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원인이 자외선 시는 대부분 지구의 오존층에 흡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쓰였다. (나)의 6문단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인이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쓰였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4문단에서 '에스피에프 50'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나)의 5문단에서 우리나라 양궁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쓰였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자외선의 종류를, (나)의 4문단에서 양궁의 종목을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

7 (가)의 1문단에서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빛이 분산되어 무지개 색상으로 배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영역이 가시광선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가)의 1문단에서 적외선과 자외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자외선을 오랫동안 쪼이면 피부 세포 속의 디엔에이가 손상을 입고, 심하면 피부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자외선의 종류 중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만 지구 표면에 도달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이 둘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에너지가 많은 자외선이 생물의 세포를 파괴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였다.

8 (가)의 4문단에서 에스피에프와 숫자는 자외선 비의 차단 정도를, 피에이는 자외선 에이의 차단 정도를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⑧와 ⑨에는 에스피에프와 피에이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므로 ⑧와 ⑨는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를 모두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오답 해설

② ⑧에는 '피에이+', ⑨에는 '피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 표시가 많은 ⑨가 자외선 에이를 더 많이 차단한다.

③ ⑧에는 '에스피에프 35', ⑨에는 '에스피에프 5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숫자가 더 큰 ⑨가 자외선 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④, ⑤ (가)의 3문단에서 자외선 시는 대부분 지구의 오존층에 흡수된다고 하였다.

9 (나)의 '중간' 부분은 2~6문단으로, 2문단에서는 양궁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3문단은 양궁의 활의 구조와 각 부분의 기능을 다루고 있다.

③ (나)의 4문단은 양궁의 종류를 다루고 있다.

④ (나)의 5문단은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 된 까닭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을 다루고 있다.

⑤ (나)의 6문단은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으로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10 6문단에서는 우리나라 양궁이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이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결과임을 인과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ㄱ).

5문단에서는 훈련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 된 까닭을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ㄴ).

오답 해설

ㄴ. (나)의 4문단에서 양궁의 종류를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종목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ㄷ. 우리나라와 유럽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견주는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서술형] ①에서는 태양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②에서는 양궁의 활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그립, 림, 스트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분석의 방법이 쓰였다.

12 (가)는 재생 건축의 필요성과 가치를 주장하는 논설문으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를 담고 있고, (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설명문으로 설명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재생 건축을,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가)는 재생 건축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대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으나, (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재생 건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통해 재생 건축의 문제점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반박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나)는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용어의 의미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자외선 차단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는 재생 건축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생 건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외선 차단제에 특정 입장을 가지고 서술하기보다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 [서술형] (가)의 주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단에서 '의미 있는 건축물은 보존하고 재생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나)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자외선 차단제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은 2문단에, ②, ⑥는 1문단에, ④는 3문단에 해당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15 ㄱ. ①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 ‘북촌 한옥 마을’은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근거에 해당한다.

ㄷ. ①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옛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낸 것은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ㄴ. 일반적인 원리를 대전제로 사용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은 ①에 쓰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관적인 설명인 ‘이유’는 객관적인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①에 쓰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 ⑩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를 전주어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⑦과 ⑧은 예시, ⑨은 구분, ⑩은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7 이 글의 주제는 양궁의 특징과 한국 양궁의 강점이므로 ‘끝’ 부분에서 우리나라 양궁의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처음’ 부분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양궁의 세계적 위상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중간’ 부분에 양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양궁의 뜻, 양궁에 쓰이는 활의 구조, 양궁의 종류 등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중간’ 부분에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인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한국 양궁의 강점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④ ‘중간’ 부분에 한국 양궁의 강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 된 까닭으로 과학적인 훈련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18 사전, 교과서, 신문은 인쇄 매체, 누리집은 인터넷 매체, 다큐멘터리는 방송 매체에 해당하므로, 조사한 자료들은 매체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그러나 면담이나 답사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 수집 방법은 쓰이지 않았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104~107쪽

1 ① 건축물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⑥ 독일의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는 해체될 예정이었던 탄광을 재생하여 가치 있는 건축물이 되었다.

2 옛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3 연역의 방법이 쓰였다. 자극적인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일어나는 우리 뇌의 중독 현상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전제로 하여 짧은 영상의 반복적 시청이 우리 뇌를 중독 현상에 빠지게 한다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4 ⑤ 짧은 영상은 내용을 압축하여 빠르게 전달해 준다. ⑥ 짧은 영상을 계속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⑦ 짧은 영상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5 ⑦~⑩은 모두 근거에 해당한다. ⑦은 전문가의 견해, ⑧은 전문 기관의 설명, ⑨은 설문 결과로 모두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 (나)의 ‘자외선은 ~ 있다.’와 (다)의 ‘이 ~ 된다.’에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7 ⑨ 구분 ⑩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별 장단점을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8 자외선은 많은 에너지로 사람의 피부 속 디엔에이를 손상시키고 심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롭다.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 또는 모자를 쓰거나 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9 ⑨ 양궁 ⑩ 양궁의 특징과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으로 강한 까닭

10 ⑨ 활의 구조 ⑩ 리커브, 컴파운드 ⑪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

11 <보기>는 활의 구조를 보여 주는 시각 자료이므로 활의 구조를 설명하는 (나)에 추가해야 한다. 시각 자료를 추가하면 활의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활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평가 요소 논증 요소 파악하기

1 (가)에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과 건축물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에 해당한다. (나)~(라)에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독일의 졸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 한국의 북촌 한옥 마을이 근거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⑨와 ⑩ 모두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10점
⑨와 ⑩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논증 방법 이해하기

- 2 (나)~(바)에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쓰였는데,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독일의 콜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 한국의 북촌 한옥 마을의 공통점은 옛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재생 건축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 내용이 귀납 논증의 결론인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마)의 ⑦에는 이러한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⑦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고, '사례'를 꾸며 주는 형태로 쓴 경우	10점
⑦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썼으나, '사례'를 꾸며 주는 형태로 쓰지 않은 경우	5점

평가 요소 논증 방법 파악하기

- 3 (나)는 '우리 뇌는 자극적인 장면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대전제,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은 우리 뇌가 자극적인 장면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이다.'라는 소전제로부터 ⑧라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연역의 논증 방법이 쓰였다.

채점 기준	배점
논증 방법의 종류와 그렇게 생각한 깨닭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논증 방법의 종류는 적절하게 썼으나 그렇게 생각한 깨닭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평가 요소 논증 요소 파악하기

- 4 (마)에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는 내용인 짧은 영상의 장점을 자투리 시간에 이용하기 안 성맞춤이라는 것과 내용을 압축하여 빠르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 짧은 영상을 계속 보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압축된 내용만 보다 보면 긴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을 통해 짧은 영상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⑧, ⑨, ⑩ 모두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10점
⑧, ⑨, ⑩ 중 두 가지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5점
⑧, ⑨, ⑩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논증 요소의 종류 구분하기

- 5 ⑦~⑩은 각각 전문가의 견해, 전문 기관의 설명, 설문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

적인 증거 자료이다. 따라서 논증 요소 중 근거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논증 요소의 종류와 그렇게 생각한 깨닭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논증 요소의 종류는 적절하게 썼으나 그렇게 생각한 깨닭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평가 요소 설명 방법의 종류 파악하기

- 6 (나)에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원인)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결과) 내용과 (다)에서 자외선 시는 대부분 지구의 오존층에 흡수되기 때문에(원인) 자외선 에너와 자외선 비만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된다는(결과) 내용에서 인과의 설명 방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설명 방법의 종류와 설명 방법이 쓰인 부분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설명 방법의 종류와 설명 방법이 쓰인 부분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설명 방법의 종류 파악하기

- 7 (라)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을 막는 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별 장단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돋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⑪, ⑫ 모두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10점
⑪, ⑫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설명하는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 8 (나)에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많아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세포의 디엔에이가 손상을 입고, 심하면 피부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에서 표피만으로는 자외선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 또는 모자를 쓰거나 긴 옷을 입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가지의 답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두 가지의 답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하기

- 9 이 글은 양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다)에서는

양궁의 특징을, (라)와 (마)에서는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 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모두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 작성하기

- 10 Ⓛ에는 (나)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활의 구조'가 적절하다. Ⓜ에는 양궁의 종류인 리커브와 컴파운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마)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으로 공정한 양궁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 Ⓛ, Ⓜ 모두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10점
ⓐ, Ⓛ, Ⓜ 중 두 가지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5점
ⓐ, Ⓛ, Ⓜ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글 쓰기

- 11 <보기>는 활의 구조를 보여 주는 시각 자료이다. 따라서 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나)에서 이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활의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독자의 이해를 돋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적절한 문단의 기호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 자료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적절한 문단의 기호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적절하게 썼으나, 자료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를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적절한 문단의 기호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적절하게 쓰지 못했으나, 자료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는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개념 플러스

시각 자료의 추가 효과

시각 자료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독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음.
시각 자료의 예	그래프, 그림, 사진 등

3

의미를 담은 표현, 매체로 보는 세상

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110~111쪽

| 핵심 확인 문제 | 1 ① 주어 ② 당하는 2 (1) 피동 (2) 능동 (3) 피동 3 ③ 4 ⑤ 5 ① 6 ⑦ 실감 ⑧ 강조 ⑨ 신뢰성

- 1 피동 표현이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능동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2 (1) 아기가 모기에게 물리는 동작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2) 꿈을 이룬 것은 동작의 주체인 희수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3) 토끼가 호랑이에게 동작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 3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실감 나게 전달하는 것은 인용 표현 사용의 효과에 해당한다.
- 4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전하는 방식으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긴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5 ①은 직접 인용, 나머지는 간접 인용에 해당한다.
- 6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신뢰성을 높이며,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다.

교과서 활동 정답하기

본문 112~119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⑤ 2 ② 3 주어, 서술어 4 ⑤ 5 ① 6 ④ 7 ③ 8 ② 9 ① 10 ③ 11 준비물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12 ① 13 ③ 14 ③ 15 ⑤ 16 ⑦ 인용 ⑧ 간접 인용 17 ⑤ 18 ③ 19 ③ 20 ⑦ 간접 인용된 부분 뒤에 '라고'가 사용되었다. ⑨ 직접 인용된 부분의 문장 부호(큰따옴표) 뒤에 '고'가 사용되었다. 21 ③ 22 ② 23 ④ 24 ① 25 직접 인용

1 ①의 서술어를 ‘따라잡았습니다’로 바꾸면 ⑦과 의미가 달라진다.

2 ⑥는 토끼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3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상황에 맞게 주어와 서술어가 달라진다.

4 ⑤는 ‘–어지다’를 사용해 만든 피동 표현이다.

5 ‘씌우다’는 문장의 주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으로 ‘쓰다–씌우다’는 ‘능동–사동’의 관계이다. 나머지는 ‘능동–피동’의 관계이다.

오답 해설

- ② 능동 표현 ‘쌓다’에 ‘–이–’를 결합하여 ‘쌓이다’가 되었다.
- ③ 능동 표현 ‘담다’에 ‘–기–’를 결합하여 ‘담기다’가 되었다.
- ④ 능동 표현 ‘쓸다’에 ‘–아지다’를 결합하여 ‘쓸아지다’가 되었다.
- ⑤ 능동 표현 ‘뒤집다’에 ‘–히–’를 결합하여 ‘뒤집히다’가 되었다.

6 ④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표현이므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잡혔다, ② 꺾였다, ③ 점령되었다, ⑤ 베어졌다가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7 ‘덮였다’는 ‘–이–’, ‘밀려났다’는 ‘–리–’, ‘들렸다’는 ‘–리–’, ‘보인다’는 ‘–이–’가 붙은 말로, 모두 피동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포위되었다’는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8 ⑦은 능동 표현으로, 동작의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9 ‘소문에 낚였다.’는 피동 접미사 ‘–이–’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고, 나머지는 ⑦과 같이 ‘–어지다’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10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거나,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주어나 목적어, 조사 등이 바뀌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12 ‘수지가 뽑혔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수지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에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다. 다만 ④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부드럽게 요청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없어지다’는 자신의 책임을 숨기는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15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하고, 인용할 내용 뒤에 ‘(이)라고’를 붙인다.

16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전하는 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하며, 이 중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전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17 간접 인용은 상황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내용을 적절히 바꾸기 때문에 문장과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18 <보기>는 직접 인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인데, 이러한 인용 표현이 전달하는 말의 의도를 부드럽게 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19 이 광고는 피동 표현을 사용해 보는 이가 스마트폰에 장악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춘 피동 표현을 보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 ②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춘 피동 표현을 보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 ④ 스마트폰이 자신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 ⑤ 스마트폰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0 간접 인용은 ‘고’를, 직접 인용은 ‘(이)라고’를 붙여야 한다.

21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

22 인용 표현은 말이나 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거나, 자기만의 표현으로 바꾸거나 요약하여 전달하므로 복잡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3 ⑦은 예측의 결과만 제시할 뿐 어떤 기상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와 같은 예측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4 ‘의견’이지만 피동 표현을 활용하면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지게 전달할 수 있다.

25 의사의 말을 문장 부호를 이용하여 전달하였고, 큰따옴표 뒤에 ‘라고’를 붙였으므로 직접 인용 표현이다.

- 1 ② 2 ⑤ 3 ④ 4 고쳐 써야 할 부분과 이유: ‘잊혀지는’은 ‘잊다’에 ‘-히-’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형태이다. / • 고친 문장: 잊히는 건 슬픈 일이야. 5 ④ 6
 ② 7 ④ 8 할머니, 문이 갑자기 닫혔어요. 9 ③
 10 ③ 11 ② 12 은지는 자기랑 같이 가자고 먼저 말했다. / 준호는 “늦지 않게 미리 가자.”라고 말했다. 13 ④
 14 ⑤ 15 ④ 16 ⑤ 17 에너지와 관련된 전문 기관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18 ⑤ 19 ⑧ 의견 ⑥ 사실

- 1 ‘잡게 하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 아니라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이다.
- 2 ⑦는 끊다 + -어지다, ⑧는 결정 + -되다, ⑨는 열다 + -리-, ⑩는 놓다 + -이-, ⑪는 꺾다 + -이-로, ⑫~⑯ 모두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3 눈물은 제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동 표현인 ‘쏟아졌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개념 플러스

피동 표현이 아닌 경우

- (가) 구두끈이 저절로 풀어졌다.
 → 남의 동작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피동이 아님.
 (나) 방이 갑자기 밝아졌다.
 →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피동이 아님.
 (다)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에 가게 되었다.
 → 주어에 미치는 외부 작용을 생각하기 어려워서 피동이 아님.

- 4 ‘잊혀지는’은 ‘잊다’에 ‘-히-’와 ‘-어지다’가 붙어, 피동 표현을 만드는 말이 두 번 사용된 ‘이중 피동’의 형태로,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 5 제시된 상황을 볼 때 ‘컵’을 주어로 한 능동 표현은 만들 수 없고,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능동 표현이 사고 발생 과정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
- 6 도서관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는 까닭은 드러나 있지 않다.
- 7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부드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듣거나 보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 8 문을 닫은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동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 9 ‘추워지다’는 동작의 주체가 없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대응하는 능동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눈이 온 산을 덮었다.’와 짹을 이룬다.
 ② ‘그가 범인을 잡았다.’와 짹을 이룬다.
 ④ ‘그가 연락을 끊었다.’와 짹을 이룬다.
 ⑥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와 짹을 이룬다.

- 10 간접 인용은 상대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방식이므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표현의 일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⑩는 바꾸는 과정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가 달라진 예에 해당한다.

- 11 도윤이는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12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한 말 뒤에 ‘(이)라고’를 붙인다. 간접 인용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한 말 뒤에 ‘고’를 붙인다.

- 13 ④는 선생님의 말씀을 간접 인용한 문장으로 문장 부호 없이 ‘고’를 붙인 것이다. 이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선생님께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셨다.’로 바꿀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민준이는 날씨가 덥다고 짹증을 냈다.
 ② 인경이는 “여기가 가장 좋다.”라고 의견을 냈다.
 ③ 아버지께서 _울 한 잔만 가져다 다오._라고 말하셨다.
 ⑤ 청중석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14 이 광고는 능동 표현인 ‘잡고 있습니까’와 피동 표현인 ‘잡혀 있습니까’를 모두 제시해, 스마트폰과 나 자신 중 누가 스마트폰 사용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했다.

- 15 ‘넘기다’는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에게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 ‘종이 따위를 젓히다.’라는 뜻을 가진 능동 표현이기도 하다.

- 16 큰따옴표를 사용했으면 직접 인용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인용한 말 뒤에는 ‘고’가 아니라 ‘(이)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 17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18 날씨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되기는 하지만, 예보가 틀릴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책임을 숨기고 객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피동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19 이 뉴스는 청소년 건강 기능 식품을 광고하는 내용이지만, ‘전망됩니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사실’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2 매체 자료 분석하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 핵심 확인 문제 | 1 의도, 목적, 재현 2 ④ 3 (1) ○
(2) ○ 4 (1) ○ (2) × (3) × 5 ② 6 분석적, 비판적

본문 124~125쪽

- 1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이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매체를 통해 다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2 정보의 편집 여부는 매체의 신뢰성과 관계가 없다. 정보의 왜곡이나 과장 여부가 매체의 신뢰성을 결정한다.
- 3 (1)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를 나누는 기준은 광고의 '목적'이다.
(2) 홍보물이란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말한다.
- 4 (1) 광고나 홍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현 방식이 달라진다.
(2) 문구와 이미지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3) 광고와 홍보물이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은 다른 매체 자료와 유사하다.
- 5 최신 유행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의 여부는 광고나 홍보물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 6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되어 재현되므로 매체 자료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126~135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③ 2 ④ 3 (1)
의도, 관점, 가치관 (2) 비판적 4 ① 5 ⑤ 6 ②
7 선택 8 ④ 9 ⑤ 10 파손 11 ⑤ 12 ③
13 ③ 14 ⑤ 15 ②, ④ 16 ③ 17 ⑤
18 (널리) 알리기 19 ④ 20 ④ 21 ④ 22 ③
23 ③ 24 ③ 25 ① 26 ⑤ 27 ④ 28 ①
29 ④

- 1 매체 자료의 재현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사실, 현상을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매체를 통해 다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 2 제작자가 선택하지 않은 정보라고 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1), (2)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 가치관이 반영되므로 매체 자료가 재현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4 매체 자료는 제작자가 선택한 정보가 편집, 재구성되어 재현된다.

5 질문을 통해 '관점의 차이'를 이끌어 낸 후, 이러한 이유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매체 자료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질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재현되므로 결과물에 어떤 정보가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광고는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실제 모습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정보(이미지)를 선택하여 재구성한다.

8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이 선택, 강조된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재현한 매체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 보고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해설

- ① 구도나 색감 등의 표현 기법은 제작자의 의도를 반영하므로 매체 자료에 사용된 표현을 파악하면 제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②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제작자의 관점이 드러나므로 매체 자료에 재현된 현실의 모습을 파악하면 제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③ 사진의 구도, 색감 등 시각적 요소는 의사 전달의 주요 수단이다.
- ⑤ 매체 자료는 제작자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편집할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9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파손되고 가로막힌 유도 블록 사진을 보며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이런 문제점을 알려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에서 문제 상황을 알려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이것에 관한 광고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런 공익 광고가 있어."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길을 안내하는 유도 블록이 파손되거나 다른 시설물에 가려져 시각 장애인들의 유도 블록 이용이 방해받고 있구나."에서 언급하고 있다.

10 시각 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유도 블록이 파손되거나 다른 시설물에 가려져 방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1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길을 안내하는 유도 블록”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통해 기능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런 공익 광고가 있어.”를 통해 공익 광고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실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사진이네. 시각 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유도 블록이 파손되거나 다른 시설물에 가려져서 시각 장애인들의 유도 블록 이용이 방해받고 있구나.”에서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은 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둠원 모두가 문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2 ⑦은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을 사람의 ‘눈’에 비유하고 있다.

13 광고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에 유도 블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유도 블록을 ‘내비게이션’에 비유하고 있다.

14 ⑩에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사용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제작자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해설

- ① ⑨은 시각 장애인이 길을 잃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⑩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관심보다 유도 블록을 밟고 서 있는 구체적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 ③ ⑪은 도로 시설의 주기적 점검의 필요성보다는 유도 블록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④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이용을 방해하여 시각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말자는 것이 광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15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색과 모양을 활용해 ‘눈’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하고 있다.

16 이 광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인식의 개선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제작자는 파손된 유도 블록을 고치고, 유도 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올려 놓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각 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하는 유도 블록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②, ④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자는 유도 블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당신이 오늘도 밟은’ 등의 구절을 통해 제작자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이 광고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배려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18 홍보물이란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 강산이네 모둠은 ‘에너지의 날’과 관련한 홍보물을 분석해 보자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 ‘에너지의 날’ 관련 홍보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실천의 독려를 목적으로 한다.

21 제시된 홍보물은 뜻이 반대인 ‘끄다’와 ‘켜다’의 대비,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2 이 홍보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불을 끄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23 이 홍보물은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에너지의 날’의 목적과 의미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② 이 홍보물은 에너지 절약의 실천적인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아이가 등장하지만 아이는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장치이다. 실제 광고의 대상은 전 세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이 홍보물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서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책임함을 꾸짖는 경고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4 이 광고는 아주 배경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 아주 배경 학생이 증가한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그런 학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6 통합되고 화합된 모습을 표현하려는 제작자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할 때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아주 배경 학생들이 농구, 매운 음식 등과 같은 한국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문화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여러 나라 출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모히브’, ‘카리나’와 같은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여 실재감을 높이고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한국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한국 음식 문화에 잘 적응한 아주 배경 학생들을 통해 한국에 잘 적응한 모습을 보여 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7 광고의 이미지만으로는 불편한 옷을 입고 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28 이 광고는 여자아이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거울을 드 모습, 남자아이는 파란색 바지를 입고 축구공을 든 모습의 이미지와 ‘예쁜 공주’, ‘용감한 영웅’ 등의 문구를 통해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담고 있다.

29 이 홍보물은 상업 광고로, 아동복 판매를 위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에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사례만으로는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 중 어느 쪽이 고정 관념이 더 많은지 판단할 수 없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136~139쪽

- 1 ⑤ 2 ③ 3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정보가 선택되거나 배제되므로 비판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한다.
4 ⑤ 5 ③ 6 ④ 7 ⑤ 8 ④ 9 ②
10 에너지의 날,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 11 ⑤ 12 ③
13 ⑤ 14 광고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이 담긴 표현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히 판단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보아야 한다.

- 1 (나)와 (다)는 모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문이다.
2 ‘승부차기’, ‘동점 상황’ 등을 통해 두 학급의 실력이 막상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서술형]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정보가 선택되거나 배제되므로 비판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한다.

개념 틀러스

매체의 종류

인쇄 매체	신문, 책, 잡지
영상 매체	영화, 드라마, 뉴스 등
인터넷 매체	웹 사이트, 포털, 블로그, 개인 누리집
소셜 미디어	에스엔에스(SNS), 커뮤니티, 메신저

4 시각 장애인들이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광고를 찾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다른 광고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시각 장애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유도 블록”이라며 대상의 역할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② 블록이 파손되거나 다른 시설물에 가려져 이용에 방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사진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실제로 시각 장애인이 유도 블록 위 시설물에 걸려 넘어진 일도 있었다고 해.”라며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유도 블록 이용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5 이 광고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6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파손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빠르게 수리해야 한다. 망가졌다고 해서 철거하면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 사라지게 된다.

7 (나)는 감성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똑같은 물컵을 보고도 사람마다 ‘남아 있다.’ 혹은 ‘반밖에 없다.’라고 다르게 표현한다. 이는 매체 자료가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관점이 개입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② 컵에 담긴 물은 동일한 양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컵의 물’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는 ‘불을 끄고’와 ‘불을 켜다’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기를 절약하는 행위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불을 보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불을 끄면 보통 어둡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의 제작자는 이를 ‘불을 켜’는 행위로 관점을 전환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8 선생님의 마지막 말을 통해 동일한 정보로 제작된 매체 자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제작자의 관점의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선생님의 질문은 관점의 차이라는 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② (가)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제작자의 관점이 반영된 매체 자료의 예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어떤 관점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판단을 통해 건강한 관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가)에는 컵에 담긴 물을 보고 다르게 생각한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른 현상 그 자체를 보여 주고 있다.

9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현실이 재구성되므로, 매체 자료를 대할 때는 제작자가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우호적인 태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의도나 관점이 객관적인지, 의도적으로 배제된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10 [서술형] (나)는 ‘에너지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설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11 (가)는 공익 광고로, 아주 배경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나)는 상업 광고로, 인식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가 목적이다.

12 (나)는 여자아이에게 ‘예쁜 공주’, 남자아이에게 ‘용감한 영웅’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성별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3 광고에 등장하는 한국 학생들은 아주 배경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4 [서술형]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고정 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잘못된 고정 관념이 반영된 광고는 비판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2 ‘입혔다’는 ‘입었다’에 ‘-히-’를 결합해 만들어진 표현으로 피동 표현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열렸다: 열었다 + -리-

③ 지어졌다: 지었다 + -어지다

④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 -어지다

⑤ 꺾였다: 꺾었다 + -이-

3 ⑦은 동작을 하는 ‘사냥꾼’에, ⑧은 동작을 당하는 ‘토끼’에 초점을 맞춘 문장이다.

4 ‘닦이다’는 ‘닦다’에 대응하는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닦여지다’이다.

5 (가)에서 서우는 자신이 책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6 컵에 초점을 맞추고 동작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컵이 깨진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피동 표현을 활용한 것이다.

7 상황을 능동 표현으로 전달하면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는 이가 책임감 있고 솔직하게 보일 수 있다.

8 ⑧ ‘업히다’는 능동 표현 ‘업다’에 피동을 만드는 말 ‘-히-’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이다. ⑨ ‘-되다’가 붙어서 피동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다. ⑩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피동을 만드는 말을 빼는 것 뿐만 아니라 조사 등이 바뀌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9 ⑪은 식탁 청소 책임자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 ⑫은 식탁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⑦의 ‘닦아’는 능동 표현이고, ⑧의 ‘닦였어’는 피동을 만드는 말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②, ④ 능동 표현은 동작의 주체에 초점이 있게 되어 상대방은 해당 내용을 들었을 때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낄 수 있다. 피동 표현은 문장의 초점이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피동 표현으로 말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할 수 있다.

③ 능동 표현은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가, 피동 표현은 상황을 설명하는 효과가 있다.

10 뉴스에 등장하는 의사는 청소년기에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본문 140~145쪽

1 ① 2 ② 3 ② 4 ③ 5 ② 6 ⑤

7 컵이 깨진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상대에게 책임감 있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8 ⑧ -히-
⑥ 전기가 사용되다. ⑨ 꿈을 이루다. 10 ⑤

11 ⑤ 12 ‘의견’에 해당하는데,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13 ③ 14 ⑤ 15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하는 말 뒤에 ‘고’를 붙여야 하는데 ‘라고’를 붙여 틀린 문장이 되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 된다고 밝혔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16 ③ 17 ③ 18 ② 19 ② 20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 21 ②
22 ⑤

1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은 서로 짹을 이루는 게 보통이지만, ‘날씨가 풀리다.’처럼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 11 ⑦은 간접 인용의 방법으로, ⑧은 직접 인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
- 12 해당 뉴스에는 사실과 기자의 의견이 섞여 있는데, 의견을 전달할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전달하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
- 13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의 주체를 숨길 수 있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14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디지털 탄소 배출량 중 80퍼센트가 디지털 기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배출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기기를 바꾸지 않아야 생산이 적게 이루어지고 디지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기기를 바꾸지 않는 습관으로 몇 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5 ⑦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간접 인용으로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하는 말 뒤에는 ‘라고’가 아니라 ‘고’를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 16 ⑨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때는 ‘어제’이고 영화는 ‘내일’ 보자고 했다. 바뀐 간접 인용문에서 말하는 시각은 ‘오늘’이므로 빈칸에는 ‘오늘 보자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7 (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광고로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담겨 있을 뿐 성 역할에 맞는 옷을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 18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 19 ‘별’을 밝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불필요한 불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는 볼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불을 끄는 것은 전등을 소등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나타내므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의미이다.
 - ③ 어두운 밤하늘과 밝은 별빛의 색을 대비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어린이를 등장시킨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지구라는 메시지를 보여 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⑤ 불을 끄면 어두워진다는 부정적 인식을, 별을 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각적인 명암 대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20 [서술형] 홍보물은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홍보물은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불을 끄고, 전원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1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 22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할인율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전략은 사용되지 않았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146~149쪽

- 1 ①은 ‘잡고’, ②은 ‘잡혀’로 ③은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 ④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다.
- 2 ⑤ 중독 ⑥ 능동, 피동 ⑦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삶
- 3 ⑧ 고래에게 먹혔다 ⑨ 나는 책상 위 사진을 ⑩ 쓰였다
- 4 ‘승부’는 스스로 어떤 대상을 뒤집는 동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맥상 능동 표현이 아닌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뒤집혔다’로 고쳐 써야 한다.
- 5 정우가 학급 회장으로 뽑혔다.
- 6 • 틀린 이유: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썼으므로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인용한 말 뒤에는 '(이)라고'를 붙여야 한다. • 옮바른 표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에너지 정책 분석가로 일한 ○○○은 “디지털 기기의 ~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7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더 강조할 수 있고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다.
- 8 ⑪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 ⑫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전하는 방식
- 9 주체를 드러내지 않기 /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 보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전달하기
- 10 뉴스의 내용을 강조하고 신뢰성을 높여 준다.
- 11 뉴스의 ‘의견’ 부분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 12 매체 제작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묘사될 수 있다
- 13 2번이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했다는 소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 14 쳤지만 잘 쌌웠다. 2번! / 2반, 아쉽지만 뜻깊은 준우승!
- 15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시각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한다

16 시각 장애인들이 유도 블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7 • ④ 이중 피동 / 쓰이는 • ⑥ 직접 인용으로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술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8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면(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1 광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문장에는 능동 표현인 ‘잡고’, 두 번째 문장에는 피동 표현인 ‘잡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⑦과 ⑧ 모두 적절한 단어를 쓰고, 어떤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명한 경우	10점
⑦과 ⑧ 중 하나만 적절한 단어를 쓰고, 어떤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명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효과 파악하기

2 광고의 이미지와 문구를 고려할 때 이 광고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고 제작자는 광고를 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모습과 스마트폰에 잡혀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었고, 동일한 상황을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나타냈다. 이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반성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④, ⑤, ⑥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④, ⑤, ⑥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④, ⑤, ⑥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3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구조 이해하기

3 (1)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고, 서술어(동사)의 형태가 변한다. 능동문의 목적어 ‘물고기를’은 피동문의 주어인 ‘물고기가’로, 능동문의 주어 ‘고래’는 피동문의 부사어인 ‘고래에게’로 바뀐다. 동사 어근인

‘먹–’에 피동 접미사인 ‘–히–’가 붙어 ‘먹히다’로 형태가 변한다.

(2)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바뀔 때는 행동의 주체는 주어로, 서술어는 능동 형태로 바뀐다. 피동문의 부사어 ‘내게’는 능동문의 주어인 ‘나는’으로, 피동문의 주어인 ‘사진이’는 능동문의 목적어인 ‘사진을’로 바뀐다.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했던 ‘보다’는 접사가 없어지고 원래의 능동사인 ‘보다’로 바뀐다.

(3) 능동문의 목적어 ‘도구를’이 피동문의 주어인 ‘도구가’로, 동사 어근인 ‘쓰–’에 피동 접미사인 ‘–이–’가 붙어 ‘쓰이다’로 형태가 바뀌었다.

채점 기준	배점
④, ⑤, ⑥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④, ⑤, ⑥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④, ⑤, ⑥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3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피동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4 ‘승부가 뒤집었다’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어색하고 틀린 이유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능동과 피동)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부’는 어떤 대상을 뒤집을 수 있는 동작의 주체가 아니므로 문맥상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은 피동 표현인 ‘뒤집혔다’로 고쳐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틀린 이유와 올바른 표현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틀린 이유와 올바른 표현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문장 만들기

5 제시된 상황과 표현 의도를 고려할 때 문장은 피동 표현으로 써야 한다. 활용할 단어가 ‘뽑다’이므로 ‘뽑히다’를 활용한 문장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뽑다’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제시된 상황과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피동문을 알맞게 쓴 경우	10점
‘뽑다’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피동문을 썼으나, 제시된 상황과 표현 의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	5점
‘뽑다’의 피동 표현만 쓴 경우	2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인용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 6 밑줄 친 부분은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썼으므로 직접 인용에 해당한다. 직접 인용의 경우 큰따옴표를 활용해야 하며 인용한 말 뒤에는 '(이)라고'를 붙여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틀린 이유와 올바른 표현 두 가지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10점
틀린 이유와 올바른 표현 두 가지 중 하나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인용 표현의 효과 파악하기

- 7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직접 인용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상대의 말을 더 강조할 수 있고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인용 표현의 효과를 <조건>에 맞추어 서술한 경우	10점
인용 표현의 효과를 썼으나 내용 전달의 효과 측면에서 서술하지 않은 경우	5점
형식에 맞는 완결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0.5점

평가 요소 인용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 8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이지만, 간접 인용은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적절히 바꾸는 경우가 많아 표현이 직접 인용과 다소 달라지기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 Ⓩ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피동 표현의 효과 이해하기

- 9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상황 자체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보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내용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피동 표현의 효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피동 표현의 효과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인용 표현의 효과 이해하기

- 10 설문 조사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면 뉴스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인용 표현의 효과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뉴스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 이해하기

- 11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뉴스의 '의견' 부분에 피동 표현을 사용한 효과를 바르게 찾아서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매체 자료의 특징 이해하기

- 12 매체 자료는 제작자가 자신의 관점을 토대로, 실제하는 정보 중 일부를 선택하거나 배제하여 재현한다.

채점 기준	배점
'관점'이라는 말을 활용하고 문맥에 맞게 내용을 바르게 쓴 경우	10점
문맥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썼으나 '관점'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5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관점의 차이 이해하기

- 13 <기사 1>과 <기사 2>는 교내 축구 대회 결승에서 1반과 2반이 경기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기의 결과는 1반이 우승하고, 2반이 준우승한 것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기사의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기사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사 1>은 1반의 우승에, <기사 2>는 2반의 패배에 주목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기사 2>가 주목하고 있는 점을 문맥에 맞게 쓴 경우	10점
<기사 2>가 주목하고 있는 점을 서술했으나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기사의 제목 추론하기

- 14 <기사 2>는 2반이 패배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동일한 상황을 1반의 우승에 초점을 맞추어 쓴 <기사 1>과 비교할 때 <기사 2>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사의 제목은 2반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노력은 인정받을 만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기사 2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쓴 경우	10점
기사의 중심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기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광고의 이미지 분석하기

- 15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이용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고이다. 특히 '눈'이라는 글자를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모양과 색깔로 표현한 것은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시각 장애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광고의 이미지를 분석한 내용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매체 자료 제작자의 의도 파악하기

- 16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실재하는 정보가 재구성되어 재현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이 광고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작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광고 제작자의 창작 의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오류 찾기

- 17 (가)의 밑줄 친 부분은 '쓰다'라는 동사에 피동을 만드는 말인 '-이-'와 '-어지다' 두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쓰이는'으로 고쳐 써야 한다. 또한 (나)의 밑줄 친 부분은 전문가의 말을 끌어다 쓴 인용 표현이고, 인용한 말 뒤에 붙은 '라고'를 통해 '직접 인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니라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④, ⑥가 틀린 이유와 올바른 표현을 모두 바르게 제시한 경우	10점
④, ⑥ 중 틀린 이유와 올바른 표현을 한 가지만 바르게 제시한 경우	5점

④, ⑥의 올바른 표현만 제시한 경우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3점 -0.5점
--	-------------

평가 요소 의사소통을 하는 올바른 태도 이해하기

- 18 우리는 주변에서 잘못된 문법 표현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순히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올바른 문법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17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10점
17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서술하였으나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5점
문맥에 맞지 않게 쓴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4

문학 속의 세상, 공감하는 우리

1 문학으로 만나는 삶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152~153쪽

- | 핵심 확인 문제 | 1 사회·문화 2 ③ 3 (1) 대사
 (2) 장면 번호(S#) 4 ② 5 ④

- 작가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므로, 작품을 읽을 때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읽으면 작품의 의미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은 수필이다.
- (1) 배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대화)이나 혼잣말로, 사건을 전개하거나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알 수 있다.
 (2) 각 장면에 매기는 번호(Scene number)로, 편집을 전제로 하여 장면을 분리해 주는 표시이다.
- 『말모이』는 1940년대 일제 강점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일제의 우리말 밀살 정책에 저항하여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말모이』의 작가는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소망을 잊지 않고 희생했던 사람들에 주목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54~155쪽

- | 핵심 체크 | 1 × 2 ○ 3 ○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1 | 1 ④ 2 ① 3 ⑤ 4 쓸데없는 일이다.

- 이 글은 극 갈래에 속하는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극 갈래는 인물 간의 대사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심리 등이 제시된다. 시나리오는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쓴 글로 장면 번호를 통해 장면을 구분한다.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자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소설의 특징이다.

- 2 자영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일본어에 밀려 사라져 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10년간 우리말을 모아 왔으며, 이 말들로 사전을 만들어 우리말을 지켜내고자 한다.

- 3 판수는 우리말이나 일본어 중 어떤 말을 써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어가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 4 [서술형] 조선어학회가 10년간 모아온 우리말 자료들을 보고 판수는 “할 일도 더럽게 없다니까. 돈을 모아야지, 말을 모아서 얻다 쓴다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56~157쪽

- | 핵심 체크 | 1 ○ 2 ○ 3 ×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2 | 1 ② 2 ③ 3 ① 4 판수가 동의를 치료할 약을 찾는 행동을 회비를 훔치는 행동으로 오해한 것이다.

- 1 자영이 읽은 신문은 일제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이제 조선인(우리)도 황국 신민이 되었으니 일제가 별인 전쟁에 참여하라는 내용이다. 신문에 사용된 ‘국어’는 문맥상 일본어를 의미한다.

- 2 판수는 정환의 앞에서는 정환을 반기지 않는 듯 쌀쌀맞게 행동하지만, 방문을 닫은 후에는 기쁨의 몸짓을 펼치고 있으므로 ‘기쁨’과 ‘반가움’이 판수의 진짜 감정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판수가 자신이 까막눈인 것을 말할 때 조심스러운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정환은 잡지책을 핑계로 판수를 찾아와 자신의 오해를 사과하고자 한다.
- ⑤ 판수는 정환의 뒤에서만 기쁨과 반가움을 드러내는 몸짓을 하고 있으므로, 정환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동의은 자신의 눈치를 보는 자영 때문이 아니라, 자영이 읽은 신문의 내용 중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에 대한 내용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했다. 이 단체에가입한 사람들이 동의과 같이 활동하던 문인들이어서 자영도 ‘눈치를 보며’ 신문을 읽은 것이다.

- 4 [서술형] 정환은 판수를 못마땅해하고 있었는데, 판수가 부상당한 동의을 돋기 위해 약을 찾는 행동을 두고 회비를 훔치는 행동이라고 오해하였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58~159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3 | 1 ④ 2 ⑤ 3 ④ 4 ⑤

5 동지, 판수는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는 정환과 뜻을 함께할 것이다.

- 1 정환의 대사를 통해 정환 아버지의 삶이 요약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되는 것으로 서술자의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의 대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② 이 글의 갈래는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③ '장난감을 주워 주며', '미소 짓는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데' 등의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심리가 제시되고 있다.
- ⑤ 현재 판수의 집에서 과거 경성역으로, 다시 현재 판수의 집으로 이동하며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다.

- 2 정환은 아버지로부터 민들레 훌씨처럼 그 걸음걸음이 펴져 나가면,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즉 '민들레 훌씨'는 흔하고 평범하지만, 함께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 3 정환은 경성역에서 조선 사람이면서도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소년 박길남을 통해 일제의 우리말 말살 정책의 결과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를 계기로 정환은 우리말을 지키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말 사전을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 4 '친일'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침략이나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경성역'은 일제 강점기 서울역의 이름을, '조선말'은 현대 이전 우리말을 부르던 이름을 뜻하는 단어로, 모두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단어이다. '민들레'와 '유학'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다.

- 5 [서술형] 정환이 남기고 간 글의 첫머리에 쓰인 '동지'라는 말과 그 의미를 통해 판수가 정환과 뜻을 함께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0~161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4 | 1 ⑤ 2 ③ 3 ③ 4

사투리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이 반영된 우리말 자산이다.

- 1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지역마다 사투리가 달라서 수집해야 할 양이 방대하고,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우리 말 사전 편찬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적어서 사투리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 2 판수 패거리가 조선어학회의 사투리를 수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런 힘들이 모여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가진 힘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① 판수 패거리는 조선어학회에 자신의 출신 지역 사투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열 사람의 한 걸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 ②, ④ 판수는 정환이 말한 '열 사람의 한 걸음'의 의미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각 지역 출신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 정환을 돋고자 한다.
- ⑥ 정환은 지인들을 불러온 판수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라고 감탄하며 함께 미소 짓는다.

- 3 판수 패거리는 자기소개를 각자의 출신 지역의 사투리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판수가 조선어학회의 사투리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음을 알 수 있다.

- 4 [서술형] 사투리 수집에 어려움을 겪자 사투리를 빼면 안 되겠느냐는 우철의 말에 조 선생은 '사투리도 엄연한 조선의 말이고 자신'이라며 사투리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2~163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5 | 1 ③ 2 ② 3 전국의 사투리를 수집하고, 표준어 공청회를 개최하여 표준어를 정한다. 4 ⑤

5 ⑤

- 1 '사투리 수집이 다 끝나야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자영의 말을 통해 사투리 수집이 선행되어야 표준어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폐간 명령서에 '국민총력조선연맹 가입 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제외한 조선어 잡지 역시 일체 폐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선어학회가 발간하는 잡지책 역시 곧 폐간될 것이다.
- ② 표준어 공청회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봉두는 '아직 한 달 남았'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조 선생은 표준어를 우리끼리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⑥ 자영은 표준어 공청회가 모두 다른 지역별 사투리 중에서 무엇을 표준어로 할 지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폐간 명령서의 주된 내용은 조선어 신문, 잡지의 폐간과 전국의 조선어 책방의 폐쇄이다. 이를 통해 폐간 명령서의 목적이 조선말을 말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국민총력조선연맹 가입 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제외한 조선어 신문과 조선어 잡지가 폐간된다고 하였다.
- ③, ④ 일제가 조선어로 된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고 조선어 책방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일제는 폐간 명령서의 내용을 어길 시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일제에 저항하는 단체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3 [서술형] (차)에 사투리 수집이 끝나야 표준어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사투리를 수집하고, 표준어 공청회를 통해 사전에 등재될 표준어를 정해야 우리말 사전을 만들 수 있다.

4 사투리 수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봉두의 홍보판을 보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흥분한 상황이다.

5 폐간 명령서가 시행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사투리를 수집하기 위해 잡지책에 각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 사투리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자는 의미이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4~165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6 | 1 ② 2 ② 3 ③ 4 우리말 사전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우리 민족의 말과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1 사전 원고의 행방을 묻는 가와모토의 말에 대해 조 선생은 당당한 태도로 “책 한 권 만들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하고 있으므로 조 선생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가와모토가 조 선생의 머리를 턱자에 짓누르고 사전 원고의 행방을 묻는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일본 경찰들이 조 선생의 머리를 짓누르고 박훈에게 놓동이질을 해도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원고의 행방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경찰들과 조선어학회 사람들의 갈등은 더욱 고조된다.
- ④, ⑤ 사전 원고를 빼앗으려는 일본 경찰과 사전 원고를 지키려는 조선어학회의 갈등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자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

2 “원고가 있으면 총독부에 출판 허가 신청을 벌써 하지 않았겠소.”라는 박훈의 말을 통해 책을 출판하기 위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사전 원고의 행방을 묻는 일본 경찰의 질문에 박훈은 원고가 있었다면 총독부에 출판 허가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말로 된 책도 총독부 허가가 있다면 출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일본 경찰은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강한 폭력을 가하고 있으며 회유책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⑤ 제시된 부분에서는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일본 경찰들에게 달려드는 이유는 사전 원고를 찾아낸 일본 경찰들이 원고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 [서술형] 〈보기〉의 자영의 말에서 우리말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찰이 사전 원고를 빼앗으려는 것은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말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6~167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7 | 1 ③ 2 ④ 3 ① 4 • 동 참한 이들: 정환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사람들, 판수와 판수 패거리, 조 선생과 그의 아내, 신의주중 학생들을 비롯한 사투리를 모아 보낸 전국 각 지역의 사람들, 우체부들, 조선어 교사들 등
• 작가가 의도한 바: 우리말 사전이 누구 하나의 힘이 아닌, 수많은 조선 민족의 노력과 희생,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1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급습해 빼앗은 사전 원고를 태워버리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말 사전 편찬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은 일제의 감시에서 벗어나 표준어 공청회를 열기 위해 친일 단체에 가입하고 일제를 친양하는 연설을 한다.
- ② 판수는 패거리와 함께 정환을 도와 표준어 공청회를 연다.
- ④ 조 선생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모이 원고를 베껴 두었다.
- ⑤ 사전 원고를 빼앗긴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사전 편찬에 큰 위기를 맞지만, 조 선생이 베껴 둔 원고로 인해 위기를 극복한다.

2 우체부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전국에서 보내온 사투리 자료를 경성역 창고에 숨겨 두었다.

3 조선어 교사들은 일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는 정환에 반발하여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지만, 판수의 안내로 표준어 공청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환의 연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어 정환과 조선어 교사들의 갈등은 해소된다.

오답 해설

- ② 조 선생이 베껴 둔 말모이 원고로 인해 정환과 박훈의 갈등이 해소된다.
③, ⑤ 정환은 회원들에게 거짓으로 친일 단체에 가입해서라도 표준어 공청회를 열자고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환의 친일 단체 가입이나 일제 찬양 연설이 거짓임을 알고 있다.
④ 일제를 찬양하는 정환의 연설로 인해 정환과 조선어 교사들의 갈등이 나타난다.

4 [서술형] (파)에서는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조선어 학회의 희생과 노력이, (하)에서는 우리말 사전 편찬을 위한 수많은 조선 민중의 도움이 나타나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에서도 우리말 사전 편찬을 위해 힘을 모았던 조선 민중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 변화를 담은 우리말의 중요한 자산이고, 사전은 규범을 정하는 도구가 아닌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우리말 사투리를 다루어 우리말의 다양성과 현실성, 사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치열함 등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3 ‘궁디’, ‘방디’, ‘궁동이’, ‘방뎅이’는 ‘궁동이’의 사투리이다. ‘엉디’는 ‘엉덩이’의 사투리이다.

4 [서술형] 전라도 교사는 촉박한 시일을 고려할 때 우리 말 사전을 완성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경상도 교사는 완성된 우리말 사전이 우리말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아무리 바빠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70~171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9 | 1 ② 2 ④ 3 ③ 4 ①

5 의자에 앉았을 때 분필 가루가 묻는 부분과 묻지 않는 부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궁동이와 엉덩이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1 판수는 분필을 이용해 사람들을 이해시켜 정환이 표준어 공청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 주면 금방들 알아들을 것을”이라는 판수의 말을 통해, 판수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방법으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엉덩이’는 허리 아래 ‘깨끗한 데’, ‘궁동이’는 ‘뭐 묻은 데’이다.

4 정환은 사람들이 단어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마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황하여’는 정환의 상황과 심리에 적절한 지시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판수의 말에 긍정하는 내용이므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적절하다.

③, ④ 불기의 윗부분이 ‘엉덩이’, 아랫부분이 ‘궁동이’이다.

⑤ ‘의기소침’은 기운을 잃고 풀이 죽은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설명으로 사람들이 엉덩이, 궁동이, 불기의 의미를 모두 알아들은 상황이므로 판수가 풀이 죽거나 기운을 잃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서술형] 판수는 사람들에게 엉덩이와 궁동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의자의 좌석 부분을 분필로 칠한 것이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8~169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8 | 1 ② 2 ④ 3 ③ 4 표 준어는 한번 정해지면 오래도록 우리말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빨리 대충 완성하는 것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정환의 대사에 정환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무대에 올라 둘러보며’, ‘단어장에 적힌 ‘엉덩이’ 뜻풀이를 읽으며’ 등 지시문을 통해 정환의 동작을 지시하고 있다.
③ ‘판수 패거리도 뭉클한 표정을 짓는다.’는 지시문을 통해 판수 패거리의 표정을 지시하고 있다.
④ #S 91 첫머리에 제시된 ‘극장 안에서 기다리는~뭉클한 표정을 짓는다.’를 통해 해당 장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정환은 ‘동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표준어 공청회 참석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엉덩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투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ㄷ). 전라도 교사와 경상도 교사의 대화나, 엉덩이의 의미에 대한 조선어 교사들의 질의 등을 통해 표준어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ㄹ). 사투리는 지역의 삶과 역사,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72~173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10 | 1 ③ 2 ① 3 ③ 4 ⑤

5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일본 경찰과 말모이 원고를 지키기 위해 문을 막는 조선어 교사들과 회원들 간의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1 (려)에 등장하는 가와모토와 우에다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의 민족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조선어 과목', '조선어 교사', '조선어학회' 등의 어휘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② 가와모토는 '합니다', '넘습니다' 등 상대방에 대한 높임 표현을 사용한 반면, 우에다는 낮춤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두 사람의 지위가 다름을 보여 준다.
- ④ 문을 부수듯 밀치고 들어오는 판수, 극장 뒤편으로 달려가는 봉두, 다급히 원고를 쟁기는 박훈 등 인물의 행동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⑤ 지문을 통해 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과 일본 경찰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은' 문의 모습을 통해 두 집단의 충돌이 머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2 가와모토는 조선어 교사들의 출근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우에다는 곧바로 조선어학회의 동태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다. 이는 일본 경찰들이 우리말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3 판수는 경찰들이 곧 들이닥칠 것을 알리며 '문을 막느라 돌아보지도 못한 채' 원고를 쟁겼는지 묻는다. 이러한 판수의 모습은 자신의 안전보다 사전 원고를 지키는 일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① 판수는 자신의 안전이나 목숨보다 우리말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② 판수가 조선어학회 회원들이나 조선어 교사들, 판수 패거리보다 극장 밖 일본 경찰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판수는 표준어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누구의 안전을 우선하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판수가 조선어 교사의 판단을 판수 패거리들의 판단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4 뒤돌아보면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이유는,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조선어 교사들 모두 원고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다급히'는 일이 바짝 닥쳐 매우 급한 상황을 드러내는 부사이다. 이로 볼 때 가와모토가 서둘러 우에다에게 보고해야 할 급

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판수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통해 판수가 급하게 뛰어왔음을 알 수 있다.
- ③ 일본 경찰들은 사전 원고를 빼앗기 위해 잠긴 극장 문을 강제로 부수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④ 극장 안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 쳐들어온 것을 알자마자 '원고'를 쟁겼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일본 경찰의 목적이 사전 원고임을 알 수 있다.

5 [서술형] (며)에서는 사전 원고를 빼앗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일본 경찰들과 사전 원고를 지키기 위해 문을 막는 표준어 공청회 참석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드러난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74~175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11 | 1 ③ 2 ③ 3 ③ 4 일제가 우리말과 우리글을 말살하기 위해 가혹한 폭력을 기하였다. /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1 극장 안 사람들의 대사에서 일본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 경찰이 곧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극장에 남아 사전 원고를 지키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 해설

- ① 일본 경찰들을 통해 우리말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모습이, 극장 안 사람들을 통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려 했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일본 경찰들이 곧 쳐들어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어 교사들과 판수 패거리,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자신들을 희생하여 정환과 판수가 사전 원고를 지킬 수 있도록 돋는다.
- ④ 조선어 교사들과 판수 패거리,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사전 원고를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⑤ 사전 원고를 지키기 위해 극장 안에 남으려는 조선어 교사들과 판수 패거리,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말 사전을 만든다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이다.

2 극장 문이 열리고 일본 경찰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극장 안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정환과 판수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경찰들 앞을 가로막고 버티며 대립하고 충돌한다.

오답 해설

- ① 봉두도 패거리들과 같은 결정을 한다.
- ② 판수 패거리도 극장 안에 남겠다는 조선어 교사들의 결정에 동참한다.
- ④ 조선어 교사들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극장 안 사람들은 정환과 판수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일

본 경찰들을 가로막고, 일본 경찰들은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두 집단의 갈등은 더욱 고조된다.

- 3 춘삼은 극장에 남아 조선어 교사들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저 샌님들이 뭔 힘을 쓰겄냐.'라는 춘삼의 말은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조선어 교사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패거리들에게 심각하지 않은 투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랑께', '여그' 등 전라도 사투리 표현을 통해 인물의 출신 지역이 '전라도'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보조사 '도'는 '역시', '또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④ 판수가 극장 안에 남겠다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미쳤다'고 표현한 것은 일본 경찰들이 곧 쳐들어올 극장 안에 남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사전 원고를 지키려는 상황에서 정환과 함께 원고를 지킬 사람으로 판수를 지목한 자영의 말은 판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서술형] (서)에는 우리말 사전 원고를 빼앗으려는 일본 경찰들의 폭력과 이러한 폭력에도 일본 경찰들을 막고 사전 원고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저항이 드러난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176~179쪽

-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③ 2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다. 3 ④
4 ④ 5 ⑤ 6 ⑥ 7 ④ 8 ③ 9 ⑦ 돌 깨는 산울림 ⑮ 채석장 포성 10 ③ 11 ② 12 ④

- 1 판수는 사투리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위해 감옥소 동기들을 데려와 사투리 수집을 돋는다. 사투리 수집과 관련한 판수와 조선어학회의 의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보기>에서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 <보기>에서 '우리'는 조선인을, '국어'는 일본어를 의미한다.
- 3 정환과 판수는 우리말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저항하여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우리말을 지키고자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우리말 자산인 사투리를 모아 표준어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자 하였다.
- ② 까막눈은 판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환이 말모이를 완성하려 했던 것은 말과 뜻이 모이는 곳에 독립의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③ 정환과 판수가 말모이를 완성하여 조선어학회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⑥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은 일본의 만행을 기록하는 일과 거리가 멀다.

- 4 판수는 처음에는 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겠다는 조선어학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함께하면서 사전 원고를 지키고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 5 '민들레'는 흔하고 평범한 존재이지만, '열 사람의 한 결음'이 모인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독립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정환의 아버지는 정환에게 '민들레'의 의미를 가르쳐 준 인물이지만, 정작 본인은 변절하여 친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 6 이 작품에는 일제 강점기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았던 수많은 조선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작가는 이러한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전하고 이들의 선택에 대한 감동을 전하고자 하였다.

- 7 이 시의 화자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성북동 비둘기의 상황을 통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성북동 비둘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비둘기의 현실 대응 태도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③ 성북동 비둘기는 개발로 인해 파괴된 자연 또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소재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전통 사회에 대한 그리움과는 거리가 멀다.
- ⑤ 화자는 성북동 비둘기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존재로, 성북동 비둘기와의 동일시는 드러나지 않는다.

- 8 ⑦은 개발로 인해 빼앗긴 비둘기의 삶의 터전을, ⑧은 파괴된 자연으로 인해 비둘기가 현재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⑨은 훼손된 비둘기의 보금자리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⑦은 개발로 생겨난 인간들의 삶의 터전을, ⑧은 개발되기 전 비둘기가 누렸던 과거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

- 9 시에서 청각(귀로 듣는 감각이나 소리)을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나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을 청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보여 주는 것은 '돌 깨는 산울림'과 '채석장 포성'이다.

감각적 이미지(심상)

감각 기관과 관련하여 구체적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시각적 이미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 가슴에 금이 갔다 - 새파란 아침 하늘에
청각적 이미지	'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 돌 깨는 산울림 - 채석장 포성
후각적 이미지	'코'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 아침 구공탄 끌뚝 연기애
촉각적 이미지	'피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미각적 이미지	'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 짭짤하고 달콤한 눈물
공감각적 이미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미지 - 분수처럼 흘러지는 무른 종소리

10 1연의 5~8행을 통해 성북동 비둘기는 인간들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기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1연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라는 구절을 통해 비둘기의 살던 곳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2연의 내용을 통해 콩알 하나 찍어 먹을 공간도 없이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있는 비둘기의 상황을 알 수 있다.
- ④ 3연의 내용을 통해 비둘기가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음이 드러난다.
- ⑤ 1연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구절을 통해 채석장 포성에 가슴에 금이 간 비둘기의 상황을 알 수 있다.

11 '성북동 산'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비둘기가 살 곳을 잃고 쫓겨나는 부작용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 ① '콩알 하나'는 비둘기가 '널찍한 마당'이 주어졌던 산업화 이전의 과거와 관련된 것으로 물질문명의 혜택과 관련이 없다.
- ③ '아침 구공탄 연기'는 비둘기가 향수를 느끼는 대상으로 비둘기가 느끼는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 준다.
- ④ '산 1번지 채석장'은 개발로 인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⑤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은 비둘기가 그나마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12 이 시는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를 비판하고 있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180~187쪽

- 1 ① 2 ① 3 밑에는 민족의 정신이 담기는데, 사투리 역시 조선의 말로서 조선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4 ④
 5 ③ 6 ② 7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인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제시한다. / 작품의 시대상을 드러낸다. 8 ③
 9 ③ 10 ⑤ 11 민들레 (홀씨) 12 ② 13 ⑤
 14 (가)에서 판수와 정환은 불편한 관계이며 정환의 오해로 갈등이 커지지만, (나)에서 정환이 판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동지가 된다. 15 ⑤
 16 ④ 17 우에다에게 다가가며, 피식거리며 18 ⑤
 19 ① 20 사진이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도록 우리말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1 ④
 22 ② 23 ① 24 ⑤ 25 ⑧ 사진 원고 ⑥ 사진 원고는 지킬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목숨과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1 "요즘은 '도시락'이라는 말 대신 '벤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도시락'처럼 사라진 조선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라는 자영의 말을 통해 일본어에 밀려 조선말이 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2 자영은 일본어에 밀려 조선말이 사라지는 일제 강점기의 변화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사진을 만들고자 한다.

오답 해설

- ② 우철은 수집해야 할 사투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일제의 감시로 인해 사투리 수집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부족하자 사투리는 빠져 안 되느냐는 탐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
- ③ 조 선생은 일제의 감시가 심해 사투리 수집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도 사투리 수집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판수는 말을 모아야 한다는 자영의 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박훈은 일제의 감시로 인해 몸을 사리기 바빠 돋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다고 말하며 사투리 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3 [서술형] (나)에서 조 선생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도 엄연한 조선의 말이고 자산'이므로 사투리 수집을 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자영은 말과 글은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므로 우리말을 지켜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4 (나)에는 일제의 폐간 명령서를 본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잡지 폐간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잡지 폐간이라는 일제의 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자영이 읽는 신문의 내용과 박훈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 ②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에 소속된 동의의 동료 문인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자영이 읽는 신문의 내용에 창씨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폐간 명령서의 내용은 조선어 신문·잡지 폐간과 조선어 책방 폐쇄인데, 이는 일제가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5 '기개'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6 박훈을 말리며 동의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영의 말이나, 같이 활동하던 작가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동의이 술을 마시러 갈 것이라는 조 선생의 말을 통해, 동의이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동료들로 인해 속상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조 선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문인들'에 대한 박훈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문인들이 일제의 정책 선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박훈의 말과, 문인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조 선생의 말을 통해 문인들이 앞장서서 일제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박훈은 '문인들'이 일제가 원하는 대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배워 전쟁터 총알받이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7 [서술형] (가)의 신문에는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 강요, 전쟁 참여 강요 등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나)의 폐간 명령서에는 일제가 조선어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고 조선어 책방을 폐쇄하여 우리말을 말살하려 한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8 판수는 일하던 극장에서 해고되고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정환의 가방을 훔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 한다.
- ② (가)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 ④ 정환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판수에게 우리말 사전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사연을 말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⑤ 판수는 정환의 앞에서는 쌀쌀맞게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정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의 몸짓'을 한다.

9 (가)는 시나리오의 앞부분 줄거리를 요약한 것으로 소설과 같이 서술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건을 전달하는 반면, (나)는 시나리오 본문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10 정환은 독립에 대한 신념을 지녔던 아버지의 변절로 '도망치듯' 유학을 떠났다가,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선인이면서도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소년(박길남)을 만나 우리말이 말살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아버지'는 조선인이면서 친일에 앞장선 인물이다. '박길남'은 친일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아버지'는 정환의 유년 시절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박길남'은 정환이 6년 만에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인물이다.
- ③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친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박길남'은 조선인이면서도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인물이지만,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 ④ '아버지'는 친일을 함으로써 정환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인물이다. '박길남'은 정환에게 일제의 우리말 말살 정책의 결과를 보여 주어 충격을 주는 인물이다.

11 문 주변에 흐드러지게 많이 볼 수 있는 작고 평범한 존재이지만, 그 홀씨가 퍼져 나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12 조선어학회의 대표인 정환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일제의 감시를 받고 있다. 판수는 일제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첫 문장을 통해 '원고'가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사전 원고임이 드러난다.
- ③ 정환은 사무실에서 동의의 악을 찾는 판수의 행동을 '회비'를 훔치려는 행동으로 오해한다.
- ④ '열 사람의 한 걸음'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럿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한다.
- ⑤ 정환은 말과 뜻이 모인 곳에 독립의 길이 있다며 사전을 만들자고 동지들을 설득하였다.

13 까막눈인 판수는 정환이 자신에게 남긴 말을 읽고 싶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글자를 묻고 있으므로 심드렁하고 무심한 태도보다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태도가 적절하다. '심드렁하다'는 '마음에 탐탁지 않아 관심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을 본 판수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므로 잘못이 있는 정환은 판수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 ② 정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판수의 태도가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자신을 찾아온 정환이 반가운 것이 판수의 진심이다.
- ③ 정환의 앞에서 한 판수의 말과 방에서 하는 판수의 행동이 상반된 것을 본 순희는 의아함을 느낄 것이다.
- ④ 조선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년의 상황을 통해 정환은 우리말이 말살되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게 된다.

14 [서술형] 판수와 정환은 가방을 훔친 사람과 도둑맞은 사람으로 만나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환의 오해로 갈등이 깊어진다. 그러나 정환이 판수에게 자신의 사연을 전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판수를 '동지'로 받아들이면서 판수도 정환의 마음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된다.

15 박훈은 일제의 폭력에도 끝까지 사전 원고의 행방을 말하지 않으므로 일제의 폭력에 굴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훈이 일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 경찰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자,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던 일제 강점기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 일본 경찰들은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총과 동등이로 위협하면서 사전 원고의 행방을 묻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사전 원고는 숨겨둔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 ② 박훈은 사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총독부에 출판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 원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우리말 사전이 '이제 막 시작하는' 것으로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훈의 말은 거짓이다.
- 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조 선생을 위협하기 위해 우에다가 쓴 총으로 인해 일본 경찰들은 사전 원고가 숨겨진 곳을 찾아낸다.

17 인물의 표정이나 움직임, 어조 등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동작 지시문'이다.

18 일제의 습격으로 사전 원고를 빼앗기고(ㄷ), 일제에게 심한 고문을 당한 조 선생이 결국 사망한다(ㄴ). 그러나 정환은 조 선생이 베껴 둔 원고와 우체부들이 경성역에 숨겨둔 원고들을 찾게 되면서(ㄱ) 정환은 표준어 공청회를 열기 위해 거짓으로 일제를 친양하는 연설을 하여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ㅁ) 마침내 전국의 조선어 교사들이 모인 표준어 공청회가 개최된다(ㄹ).

19 정환의 아버지는 조 선생이 잡혀가도록 하여 조 선생의 사망에 일조하는 등 친일파로서 말모이 편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 정환은 거짓으로 친일 단체에 가입하고 일제를 친양하는 연설을 하면서까지 말모이 편찬을 위해 노력한다.

오답 해설

- ② 정환의 아버지는 친일파이고, 정환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친일을 하는 것이다.
- ③ 우리말 사전을 완성하는 것은 정환의 목표이다. 정환의 아버지는 친일파이므로, 일제의 우리말 말살 정책에 동조할 것이다.
- ④ 정환이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환과 정환의 아버지는 각각 독립과 친일이라는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였다.
- ⑤ 정환은 조 선생을 위험에서 구하지 못하였다.

20 [서술형] 경상도 교사는 표준어를 서둘러 정하자는 전라도 교사의 말에 한 번 사전에 나오면 '평생 남기 때문에'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21 (가)는 일제가 우리말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 강점기를, (나)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시화·산업화가 이루어졌던 1960년대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1940년대 일제 강점기를, (나)는 1960년대의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갈등의 해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가)에는 일제의 폭력에도 좌절하지 않고 사전 원고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나)에는 성북동 산을 개발하고 비둘기장을 쫓기는 새로 만든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 ⑤ (가)에는 일제가 곧 쳐들어오는 문제적 상황이, (나)에는 비둘기가 삶의 터전을 잃은 문제적 상황이 드러난다. (가)에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이 드러날 뿐,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에서도 문제적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날 뿐,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22 극장으로 쳐들어오는 '경찰들의 고함과 발소리'는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긴장감,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한다. 성북동 비둘기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돌 깨는 산울림' 역시 비둘기에게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스크린 뒤편의 '쪽문'은 일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을, 성북동 산에 새로 생긴 '번지'는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 ③ '극장 문'은 일본 경찰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마당'은 갈 곳 없는 비둘기의 현재와 대조되는 비둘기의 과거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극장 문을 부수기 시작하는' 일본 경찰들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비둘기는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히늘을 한 바퀴 돌고 있으므로' 여전히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춘삼과 봉두는 조선어 교사들과 함께 극장 문을 막고 사전 원고를 지키기 위해 '한꺼번에 다시 출입문으로 달려'간다. 갈 곳 없는 비둘기는 파괴된 삶의 터전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간다.

23 춘삼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전 원고를 지키기 위해 극장에 남으려는 조선어 교사들을 보고 이들을 돋기 위해 극장에 남으려 한다.

24 일본 경찰들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사전 원고를 챙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판수(㉡)라면 우리말 '도시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⑦의 판수는 말을 모으는 일에 대해 할 일도 더럽게 없다고 말하면서 밥만 안 짖으면 되지 일본어든 우리말이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⑤의 판수는 일본 경찰의 위협에도 자신의 안전보다 사전 원고를 먼저 챙기고 있으므로 우리말을 지키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우리말의 가치나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⑦의 판수라면 일본 경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우선할 것이다.

25 [서술형] 판수를 비롯한 조선어학회 사람들과 조선어 교사들이 일본 경찰들로부터 지키려 하는 것은 ‘사전(말모이) 원고’이다.

2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188~189쪽

- | 핵심 확인 문제 | 1 상대방 2 (1) 갈 (2) 공 3 ③
4 ① 5 (1) ○ (2) ○ 6 ④ 7 ⑤

- 1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화하기이다.
- 2 (1)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는 의사소통 중 생겨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과정을 말한다.
(2)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여 상대방과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높여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기’에서는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대화를 권장한다.
- 4 ②~⑤ 모두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①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5 (1) ‘공감하며 대화하기’에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공감하며 대화하기’에서는 상대방의 입장, 관점, 정서에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6 ‘갈등을 조정하며 말하기’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7 자신이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대화 태도가 아닌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이다. ①~④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태도이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190~198쪽

-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④ 2 ⑤ 3 ④
4 상대방과 신뢰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5 ② 6 ④ 7 그랬구나. / 그랬어? 승우랑 무슨 일이 있었어? 8 ③ 9 ①
10 오늘까지 수행평가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동생이 놀자고 하고 옆에서 장난을 쳐서 과제에 집중할 수 없다. 11 ②

12 ① 13 ⑤ 14 교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진호와 창문을 닫고 시원한 교실에 있고 싶은 지유의
 의견이 대립되어 갈등이 일어났다. **15 ④ 16 ①**
17 ⑤ 18 ③ 19 ② 20 ② 21 아빠가 휴대
 전화를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주고 믿어
 주기를 바람. **22 ② 23 ⑤**

- 1** 이 대화에는 성주의 성적에 대한 정원의 기대나 예측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는 성주의 입장에 정원은 공감하여 성주의 말을 요약하고, 성주의 감정을 파악하여 말해 주고 있다.
- 2** 정원은 성주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원은 성주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성주에게 공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주가 시험 성적에 대한 아쉬움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돋는다.
- 3** 정원의 말하기에서 성주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 판단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4** **[서술형]**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공감해 주는 정원과의 대화를 통해, 성주는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감을 회복한다.
- 5** 다운은 민서에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만, 민서는 다운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휴대 전화를 보며 대화를 이어 가거나 다운의 상황과 감정에 맞지 않은 선별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 민서의 모습을 통해, 민서가 다운의 고민에 집중하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③ 다운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
- ⑥ 민서가 급식 반찬에 대한 주제를 꺼내자, 다운은 더 이상 말을 이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 6** 민서는 ‘잘못한 게 생각 안 나도 무조건 그냥 사과해’라는 해결책을 제시는 하고 있다. 다만 제시한 해결책은 다운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다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민서는 다운이 대화를 시작하였음에도 휴대 전화를 보며 다운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
- ② 민서는 대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오늘 급식 반찬에 관한 말을 꺼내고 있다.
- ③ 민서는 다운의 걱정을 사소한 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있다.

⑤ 민서는 승우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다운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운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7 **[서술형]** 다운의 말에 호응하는 ‘그랬구나.’, ‘그랬어?’ 등과 같은 맞장구치는 표현을 사용한다.

8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9 정원이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10 **[서술형]** 지원은 형과 놀고 싶고, 정원은 수행평가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11 정원은 지원에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적절히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원의 감정을 파악하여 언급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지원은 형과 놀고 싶어 하지만, 정원은 수행평가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원과 놀 수 없으므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 지원은 정원의 말을 경청한 뒤 정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정원의 요청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⑤ 정원은 수행평가 과제가 내일까지라는 자신의 상황과, 지원의 장난으로 인해 과제에 집중하지 못해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자신의 감정을 지원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12 정원은 지원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설명하고 요청 사항을 제시했으나,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정원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준언어적 표현 없이 차분한 태도로 동생에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정원은 과제가 내일까지라서 오늘 꼭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원이 옆에서 장난치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정원은 집중이 되지 않고 걱정스럽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지원에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정원은 과제가 끝날 때까지 지원이 다른 곳에서 놀기를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13 <보기>에서 정원은 지원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수행평가를 하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는 요청은 전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갈등을 심화시켜 관계가 나빠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4 진호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어 했고, 지유는 더운 공기가 들어오므로 창문을 닫고 싶어 했다. 이러한 교실 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갈등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5 진호는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지유는 ‘교실 창문을 세게 닫는’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을 넘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대화에서 진호와 지유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요구만 강하게 드러내어, 의견 충돌이 갈등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사용이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진호는 지유를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 ② 창문을 열고 싶은 진호와 창문을 닫고 싶은 지유의 의견 충돌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 ③ 진호가 잠깐만 창문을 열자는 의견을 내었으나, 지유는 교실 창문을 세게 닫으며 자신이 땀 나고 더운 상황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진호와 지유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대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두 사람의 갈등은 대화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16 <보기>에서 지유는 자신의 상황(운동 후 덥고 땀 나는 상태)을 설명하며, 창문을 바로 열지 말고 10분 후에 열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지유는 진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진호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입장은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가능성 이 높고,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④ 지유의 언어 표현에는 진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보다 두 사람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협력적으로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 ③ <보기>의 지유는 진호에게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창문을 열고 싶은 진호의 의견을 고려하여 요청하고 있으므로, 진호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지유는 창문을 당장 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방금 운동하고 들어와 너무 덥기 때문임을 설명하며, 진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17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과 거리가 멀다. 이는 갈등을 조정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18 ‘공감하며 대화하기’란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반응하는 대화이다.

오답 해설

- ① 공감하며 대화하기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는 객관적 태도 보다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② 공감하며 대화하기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상대방에게 조언하려는 태도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와 관련이 없다.
- ④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말에 관해 판단하는 태도와 관련이 없다.
- ⑤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 말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와 관련이 없다.

19 상대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반응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해당한다.
- ③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요약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이다.
- ④ ‘맞장구치기’로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다.
- ⑤ 눈을 맞추고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할 때까지 집중하여 듣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해당한다.

20 민영이는 아빠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빠가 이해하도록 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아빠는 민영이의 상황과 감정을 듣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대화를 통해 민영이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아빠가 이를 이해하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 ④ 민영이는 친구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아빠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였다.
- ⑥ 아빠는 민영이의 휴대 전화 사용 시간을 문제 삼았지만, 그 이유를 걱정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달하고 있다.

21 [서술형] 민영은 휴대 전화를 적절히 사용하려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밝히면서, ‘아빠가 저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22 대화를 통해 아빠와 민영은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있다.

23 갈등 상황에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려면 부드러운 말투나 차분한 목소리와 같은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야 도움이 된다. 따라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 ④ 2 ⑤ 3 ③ 4 설부르게 사과했다가 승우랑 더 멀어질까 봐 걱정되는구나. 5 ⑤ 6 ④ 7 ①
 8 (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반면, (나)는 대화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가)의 대화 참여자가 대화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사용한 반면, (나)의 대화 참여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9 ③ 10 ③ 11 ③
 12 ② 13 영민은 갈등 상황에서 '얼굴을 징그리며', '기방을 집어 던지며' 등 부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 (다)의 정원은 성주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눈 맞춤, 고개 끄덕임, 맞장구치기 등의 '관심 표현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성주의 말을 정리하고 성주가 느낀 감정을 파악하여 말해 주는 '요약하기'의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민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나)의 민서는 다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운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 ③ (나)의 다운은 민서에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으나, 민서는 다운의 말에 대해 '관심 표현하기'를 사용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⑤ (다)의 정원은 성주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고 있으나, 성주가 정원의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개념 틀리스

양상

- 뜻: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 소설의 시대별 양상을 살펴보자.
- '말모이'에는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는 조선어학회와 이를 막으려는 일본 경찰들 간의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2 (나)의 다운과 (다)의 성주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문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다)의 성주는 정원의 공감을 통해 위안을 얻지만, (나)의 다운은 민서의 무관심한 반응으로 위안을 얻지 못한다.
- ② (나)의 다운과 (다)의 성주가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인물은 (다)의 정원이다.
- ③ (다)의 성주는 대화를 통해 정원의 공감적 반응을 얻지만, (나)의 다운은 민서의 공감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 ④ (다)의 성주는 정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 위안을 얻지만, (나)의 다운은 민서의 무관심한 반응으로 인해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

3 '이번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는 '요약하기'의 방법을 사용한 언어 표현이다. 나머지는 모두 '관심 표현하기'의 방법을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서술형] "그렇게 쉽게 해결될까? 괜히 승우랑 더 멀어질까 봐 걱정돼."라는 다운의 말을 요약하고 이 말에 담긴 다운의 걱정스러운 감정을 파악해 표현해야 한다.

5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정원의 반응을 통해 성주는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을 회복하였으며, 정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오답 해설

- ① 민서의 "그래?"라는 표현은 언뜻 맞장구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휴대 전화를 보며 대화하는 민서의 행동을 통해 다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다운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지만, 민서는 설부른 해결책만 제시하며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이어진 대화에서도 민서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자, 다운 역시 대화를 이어 갈 의지를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정원은 성주의 말을 요약하고 성주의 감정을 파악하여 말해 주고 있다.

6 ④는 직업으로 그림 그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협주의 판단이다.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에 대해 공감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관해 판단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비언어적 표현)이다.
- ②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치는 표현이다.
- ③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말해 주고 있다.

7 (가)에서는 지원과 정원이 놀이와 과제 수행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에서도 교실 환기에 대한 진호와 지유의 의견 차이로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두 대화 모두 대화 참여자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만, (나)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적절한 언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나)에서는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 진호와 지유는 각각 자신이 원하는 바(환경, 창문 닫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8 [서술형] 갈등의 상황에서 갈등의 해결 여부는 대화의 방법과 태도와 관련된다. (가)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에는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방법과 태도로 인해 대화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게 된다.

9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청을 한 사람은 정원이다.

오답 해설

- ① 정원과 지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있다.
- ② 지원은 지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지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④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과제였구나. 나는 몰랐어. 미안해.”라는 지원의 반응을 통해, 지원이 정원의 상황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아, 형”이라는 지원의 반응은 수행평가 종이라 이따 같이 놀자는 정원의 의견에 대해 반발하는 표현이다.

10 진호는 “잠깐만 좀 열게.”라고 말하며, 창문을 열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지유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지유는 교실을 환기하고 싶은 진호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다.
- ② 지유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 ④ 지유는 진호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⑤ 진호 역시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1 ㉠은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표현이다. ‘너만 이 교실 쓰고 있어?’처럼 ‘너’를 주어로 상대를 판단하면 비난과 연결된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은 갈등을 심화시킨다.

오답 해설

- ① ‘너는 항상 이기적이야’처럼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표현을 통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②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말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
- ④ 강한 비난과 일반화(‘항상’, ‘너만’)된 표현 등은 상대방의 방어심리를 자극하여 갈등을 심화시킨다.
- ⑤ 공격적, 평가적 표현만 있어 협력적으로 소통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

12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말하고,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여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유진: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지훈: 자신의 입장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주장하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③ 정민: ‘무조건 공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갈등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감정만 맞추는 태도이다.

13 [서술형] <보기 1>에서 설명한 것처럼, 갈등 상황에서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2>에서는 청소 당번 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영민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본문 203~210쪽

- 1 ② 2 ① 3 ⑤ 4 ④ 5 ①. ③ 6 ① 일 제가 우리말을 말살하려는 정책(조선어 신문·잡지의 폐간, 전국의 조선어 책방 폐쇄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이용해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다. ③ 일제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 7 ④ 8 ⑤ 9 ‘문인들’과 ‘아버지’는 모두 친일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조선인이면서도 일본의 편에 서서 친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⑦ 일본 경찰들이 극장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기 직전, 인물들이 긴박한 상황에 처함. ④ 우리말 사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보여 줌. 15 ⑤ 16 ③ 17 ③ 18 ③ 19 ① 20 ⑤ 21 시험을 망친 속상한 마음을 정원에게 위로받고 싶다. 22 ① 23 ① 24 ④

1 자영은 일본말에 밀려 조선말이 사라지는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도, 우리말을 모아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

오답 해설

- ① 판수는 현실적이고 조선말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뿐, 일제의 정책에 반발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 ③ 판수는 일제 강점기 우리말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④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판수가 아니라 자영이다.
- ⑤ 자영은 지식인으로서 일제의 정책에 대해 저항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조 선생’은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는 사투리도 역시 조선의 말이

자 자산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우리말을 모으고 지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조 선생은 우리말을 모으고 지키려는 인물이므로 일본어나 조선말이나 상관없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조 선생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③ 조 선생은 우리말을 모으고 지키려는 인물이므로, 우리말을 모으는 일이 쓸데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 ④ 자영은 일본어에 밀려 사라지는 우리말의 예로 ‘도시락’을 들고 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 주는 말로 든 것은 ‘우리’이다.
- ⑤ 자영은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일본어에 밀려 사라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사전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말 사전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우철이 사투리를 제외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사투리를 모두 조사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철이 사투리를 춘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자영이 창고에 모아 둔 낱말들의 구체적인 수를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말을 모으는 것에 대한 자영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드러난다.
- ② 자영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일본어에 밀려 조선말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자영은 일본어나 조선말이나 쓸 수 있으면 된다는 판수의 말을 반박하며 우리말이 우리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로 ‘우리’를 사용한 단어들을 예로 들고 있다.
- ④ 교사들은 ‘몸 사리기에 바빠서 돋겠다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도 조선어학회의 사투리 수집을 돋고 있다.

4 표준어 공청회는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같은 뜻의 여러 말 가운데 어떤 말을 표준어로 할지 합의하는 자리이다. 즉 표준어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우리말 사전에 실릴 표준어를 정하기 위해서이다.

5 ‘말모이’는 전국의 사투리를 포함한 우리말을 모으는 활동을 뜻하면서, 이렇게 모은 우리말을 바탕으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오답 해설

- ② 영화 간판은 말모이를 진행하는 데 활용된 방법의 하나일 뿐, 영화 간판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 ④ 말모이는 폐간 명령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나온 해결책이다.
- ⑤ 말모이는 표준어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

6 [서술형] 일제의 ‘폐간 명령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어 사용이 강요되어 우리말 신문과 잡지가 폐간되고, 우리말이 사라질 위기에 놓

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우리 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며 민족의 말과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7 판수가 패거리들을 데려와 사투리 수집을 돋고, 이를 통해 정환과 판수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로서 협력하게 된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갈등이나 거리감에서 벗어나 한층 더 친밀된다.

오답 해설

- ① 박훈이 문인들의 친일을 질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동익과 박훈 사이의 갈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조선어학회 내부의 갈등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② 판수는 자신을 찾아온 정환을 앞에서는 쌀쌀맞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반기워하므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덕진과 순희가 정환이 쓴 ‘동지’의 의미를 판수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판수는 정환과 동지로서 행동하게 된다.
- ⑤ 판수는 조선어학회가 사투리 수집에 어려움을 겪자, 전국 각 지역 출신 지인들을 데려와 조선어학회 일을 돋는다.

8 판수나 판수의 감옥소 동기들이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갔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조선인들이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는 현실을 지적하는 박훈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자영이 신문을 읽으며 언급하는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 강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경성역에서 정환이 만난 박길남이 일본어만 할 줄 알고 조선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일제의 일본어 강요로 인해 조선 말을 모르는 조선인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④ 정환은 사투리와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고자 한 노력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말을 지켜 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서술형] ‘문인들’은 동익과 같이 활동하던 작가들이었으나, 지금은 친일 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에 소속되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정환의 아버지’ 역시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모인 힘이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친일하는 인물이다.

10 정환은 아버지의 친일로 인해 도망치듯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우연히 만난 박길남을 통해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제의 우리말 말살 정책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환은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박길남은 친구와 장난을 치며 뛰어가다가 정환과 부딪히게 된다.
- ② ③ ‘멀뚱멀뚱하게’는 눈만 둥그렇게 뜨고 다른 생각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양을 의미하므로, 박길남이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일본의 뜻에 동조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정환은 아버지의 친일 때문에 일본으로 도망치듯 유학을 떠나게 된다.

11 판수네 패거리는 판수의 주도로 조선어학회에 오게 되었으며, 판수의 요청에 따라 자기 지역의 사투리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독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들레 훌씨처럼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판수는 조선어학회의 사투리 수집을 돋기 위해 지역 출신 지인들을 데려왔다.
- ② 판수가 데려온 패거리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평범하고 흔한 사람들이다.
- ③ 판수가 패거리들을 데려온 것은 정환의 뜻, 즉 우리말 사투리 수집을 돋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행동이다.
- ④ 각 지역 출신 패거리들이 조금씩 사투리를 알려 주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우리말 사전 제작에 기여하므로, ‘열 사람의 한 걸음’의 의미를 보여 준다.

12 ⑩에서는 대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출신 지역이 드러나지만,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정보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⑩만으로 일제 강점기 등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는 없다.

13 전라도 교사는 위급 상황에서도 원고를 지키는 행동을 한다.

오답 해설

- ① 춘삼은 조선어 교사들을 극장 밖으로 피신시키려 했으나, 조선어 교사들은 춘삼, 판수 패거리와 함께 극장에 남아 일제에 저항한다.
- ② 평양은 춘삼과 함께 남기로 결정하면서도, 봉두는 안전하게 나가길 바란다. 춘삼이 봉두에게 나가라고 하는 의도는 원고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
- ③ 충청도 교사는 조선어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극장에 남겠다고 말하고 있다. 극장 밖으로 피신할지에 대한 내적 갈등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④ 동익은 극장 안에 남아 원고를 쟁기는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극장 문을 직접 막으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14 [서술형] 일제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이 극장 안에 남아 원고를 지키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통해, 작가는 우리말 사전 제작이 많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15 지유는 교실 환기를 하자는 진호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창문을 닫으며 자신의 불편함만 강조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태도이다.

오답 해설

- ① 진호는 지유와의 갈등에서 화를 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 ② 지유는 의견을 조율하거나 타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
- ③ 지유는 진호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하고 있다.
- ④ 진호는 지유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갈등이 커진다.

16 (가)의 지유는 진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으며, (나)의 민서도 다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설부를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지유와 민서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 ②, 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한 사람은 지유가 아니라 진호이다.

17 ‘그래?’는 맞장구치는 표현으로, 맥락상 다운의 말에 대해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휴대폰을 보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오답 해설

- ① ⑦에서 지유는 창문을 세게 닫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갈등을 심화시킨다.
- ② ⑧에서 진호는 화난 목소리의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 갈등을 악화시킨다.
- ④ ⑩에서 민서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설부를 해결책을 제시한다.
- ⑤ ⑪에서 민서는 대화와 무관한 급식 이야기를 꺼내 주제를 흐린다.

18 (가)에서 정원은 성주의 관점에서 성주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나)의 화자 또한 비둘기의 관점에서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정원과 성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나)의 화자와 비둘기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가)의 정원과 성주는 서로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나)의 화자와 비둘기 사이의 협력적 소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의 정원과 성주, (나)의 화자와 비둘기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서 정원은 시험을 망친 성주의 상황을 안타깝게 인식하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개발로 인해 살 곳을 잃은 비둘기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9 정원은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고 맞장구치는 표현을 사용하여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며 말함으로써 상대의 입장과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대화의 방법과 태도가 잘 드러나는 것은 ①이다.

오답 해설

- ②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 ⑤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꺼내고 있다.

20 정원이 성주의 문제를 분석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정원은 휴대 전화를 집어넣고 성주의 말에 반응하며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② 정원은 성주의 노력을 인정하고 아쉬운 마음을 이해하는 발언을 통해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③ 정원은 성주의 말을 다시 정리해 말하며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원은 대화 중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으로 성주의 말에 호응하고 있다.

21 [서술형] 성주는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는 정원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정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로 보아 성주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고 위로받고 싶었음을 알 수 있다.

22 성북동 비둘기에게 ‘산 1번지 채석장’은 자연을 파괴하는 돌 깨는 산울림과 포성이 있는 공간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파괴된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② 성북동 산에 새로 생긴 ‘번지’는 1960년대 개발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 ③ 본래 살던 번지가 없어진 상황은 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이다.
- ④ 개발로 인해 번지가 없어지고 갈 곳을 잃은 ‘성북동 비둘기’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 ⑤ ‘메마른 골짜기’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파괴된 자연 생태계를 의미한다.

23 3연에는 산도 사람도 사랑도 평화도 모두 잊고 쫓기는 새가 된 비둘기의 상황이 나타난다. 화자는 비둘기를 쫓기는 새로 만들어 버린 현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24 번지가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은 비둘기에게, 조용히 앉아 콩알을 먹을 수 있는 ‘널찍한 마당’은 비둘기가 원하고 바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비둘기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쫓겨나게 된 공간이다.
- ② 비둘기가 인간과 조화를 이루었던 자유로운 공간이다.
- ③ 비둘기의 현재와 관련된 공간이다.
- ⑤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가 그나마 잠시 앉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211~214쪽

1 (가) • 사회·문화적 상황: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 근거: 결국 조선인들에게 일본에 가르쳐서 전쟁터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 사회·문화적 상황: 일제의 편에 서서 친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근거: 같이 활동하던 작가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는데

(나) • 사회·문화적 상황: 우리말을 지키고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근거: 말이 모이는 곳에 뜻이 모이고, 그 뜻이 모인 곳에 독립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고

(다) • 사회·문화적 상황: 일제가 조선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하였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 • 근거: 경찰들의 몽둥이에 하나둘 쓰러지는 사람들. 쓰러지면서도 경찰들을 붙잡고 늘어진다.

2 (1) (하나는)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한 현실에 굴복하여 친일하며 편안한 삶을 선택한 ①(문인들)이나, ②(아버지)과 같은 삶이다. (2)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제에 저항하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내던진 ③(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조선어 교사들, 판수 패거리)과 같은 삶이다. (3)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우리말을 지켜낸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3 (가), (나)에서 대화 태도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진호, 지유, 민서이다. 진호는 대화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유는 대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민서는 대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나)의 민서는 대화를 시작했음에도 ‘휴대 전화를 보며’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반면), (다)의 정원은 성주가 대화를 시작하자 ‘보고 있던 휴대 전화를 집어넣으며’ 말에 집중하는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5 (1) (다)의 정원은 성주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성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 ‘그렇구나?’ 등의 맞장구치는 표현을 함으로써 관심 표현하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험을 망쳤어?’, ‘이번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네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겠다.’ 등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말해 주는 요약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2) 이를 반영하여 ①을 ‘그랬구나. 갑자기 승우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하고 고민이 많았겠다.’로 고칠 수 있다.

평가 요소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1 (가)~(다)는 일제 강점기인 1940년대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가)에서는 자영이 읽는 신문의 내용과 동의의 동료 문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나)에서는 정환의 사연을 통해, (다)에서는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조선어 교사들, 판수 패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가), (나), (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10점
(가), (나), (다) 중 두 부분에서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 근거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가), (나), (다) 중 한 부분에서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 근거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3점

채점 기준	배점
대화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세 명의 인물을 찾아 문제점을 적절히 설명한 경우	10점
대화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세 명의 인물 중 두 명의 인물을 찾아 문제점을 적절히 설명한 경우	5점
대화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세 명의 인물 중 한 명의 인물을 찾아 문제점을 적절히 설명한 경우	3점

평가 요소 문학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 2 ‘문인들’과 ‘아버지’는 모두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선택한 인물들이다. 반면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조선어 교사들, 판수 패거리’는 동일한 현실에서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한 인물들이다. 동일한 시대적 상황에서 상반된 선택을 하는 인물들을 통해,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가치가 더욱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채점 기준	배점
인물이 선택한 삶의 방향을 기준으로 ⑦~⑩을 두 종류의 인간상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적절히 설명한 경우	10점
인물이 선택한 삶의 방향을 기준으로 ⑦~⑩을 두 종류의 인간상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나, 작품의 주제를 이와 적절히 연관 짓지 못한 경우	5점
⑦~⑩을 두 종류의 인간상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적절히 설명하였으나, 인물이 선택한 삶의 방향을 대조적으로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3점
⑦~⑩을 두 종류의 인간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인물이 선택한 삶의 방향을 대조적으로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작품의 주제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경우	

평가 요소 대화 태도와 방법의 문제점 파악하기

- 3 (가)는 부적절한 대화 태도와 방법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진호와 지유가, (나)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 태도로 상대방과의 친밀감이나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서가 등장한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부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진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부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지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선부른 해결책으로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하게 만드는 민서의 모습을 통해, 대화할 때 적절한 대화 태도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 요소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의 적절성 이해하기

- 4 <보기>는 대화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나)에서 민서는 대화하면서 휴대 전화를 보며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다)에서 정원이는 대화를 시작하자 휴대 전화를 집어넣고 성주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서는 상대방과의 대화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반면, 정원은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비언어적 표현이 대화의 적절성과 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민서와 정원이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을 찾아 적절성을 바르게 판단하여 서술한 경우	10점
민서와 정원이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민서와 정원이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은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3점

평가 요소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적용하기

- 5 (다)의 정원은 ‘관심 표현하기’와 ‘요약하기’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으므로, ‘관심 표현하기’와 ‘요약하기’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⑦을 고쳐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다)에서 ‘관심 표현하기’와 ‘요약하기’가 된 부분을 모두 찾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⑦을 적절하게 고친 경우	10점
(다)에서 ‘관심 표현하기’와 ‘요약하기’가 된 부분을 모두 찾아 분석하였으나, 이를 ⑦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	5점
⑦은 적절하게 고쳤으나, (다)에 활용된 ‘관심 표현하기’와 ‘요약하기’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한 경우	3점

지학사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완벽한 교재를 위한 노력

- 도서 오류 신고는 「홈페이지」 > 참고서 > 해당 참고서 페이지 > 오류 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간 이후에 발견되는 오류는 「홈페이지」 > 참고서 > 학습 자료실 > 정오표」에서 알려드립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면 수신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평가문제집

중학교 국어 2-1

교과서 원저자 © 서혁 외 8인

지은이 송정운, 오경란, 정승희, 박주영

개발 총괄 오세중 | 개발 책임 박정희 | 편집 정다운, 김다은, 신승아

영업 마케팅 최규명, 김혁래, 이상현, 김윤제, 문조윤

마케팅 성인영, 이상무, 김규리, 김윤희

디자인 책임 김의수 | 표지 디자인 이창훈, 한강산 | 본문 디자인 이창훈

조제판 보문씨앤씨 | 인쇄 제본 벽호

발행인 권준구 | 발행처 (주)지학사 (등록번호 : 1957.3.18 제 13-11호)

04056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발행일 2026년 1월 30일 [초판 1쇄]

구입 문의 TEL 02-330-5300 | FAX 02-325-8010

구입 후에는 철회되지 않으며, 잘못된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내용 문의 www.jihak.co.kr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 담당자 안내>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주)지학사에 있습니다.

(주)지학사의 서면 등의 없이는 이 책의 체재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정가 22,000원



53710

9 788905 059415

ISBN 978-89-05-05941-5